제94회 남원 춘향제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진화와 혁신

2024. **5.10** 금 ~ **5.11** 토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주최 남원시 주관 춘향제전위원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제94회 남원 춘향제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진화와 혁신

주최 남원시 주관 춘향제전위원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Contents

3 인사글

4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 개요

5 포럼 프로그램

6 포럼 참여 안내페이지

기조강연

8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역할 / 김세원

세션1 지역축제산업 성장과 로컬관광의 전략적 관계

11 해외발제 – 레베카 보토니 Rebecca Bottoni

15 국내발제 – 류정아 Jeungah Ryoo

33 토론 – 박상언 Sang-On Park

36 토론 – 김은진 Eunjin Kim

세션2 K-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41 해외발제 – 알랭 티마르 Alain Timar

47 국내발제 – 김지선 Jisun Kim

65 토론 – 최준호 Junho Choe

68 토론 – 류인평 InPyong Ryu

세션3 인구소멸 관점에서의 지역 축제의 역할

73 해외발제 – 스가와라 켄스케 Sugawara Kensuke

86 국내발제 – 서병로 ByungRo Seo

120 토론 – 김동영 DongYoung Kim

124 토론 – 이선철 Sun-chul Lee

춘향제 소개

128 남원춘향제, 2030년의 100년을 준비한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피어나다 남원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31년에 시작된 남원 춘향제가 올해로 9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효시 축제로서의 명성만큼
2030년 축제 100주년을 향해 남원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제94회 춘향제는 '춘향 COLOR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남원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며 행복해지는 축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의 진화와 혁신'을 주제로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세계축제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남원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준비한 춘향제와 포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축제와 지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좋은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최경식
춘향제전위원장 이강오

제94회 춘향제 남원

2024, 제94회 춘향제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추진 배경 및 목적

근대축제 효시의 공론화장

2030년은 춘향제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축제의 방향성 탐색할 수 있는 축제플랫폼 구축

축제의 로컬 관광화 전략

남원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인 '제94회 춘향제'를 통한, 축제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인구소멸 해법

축제로 유입되는 방문객 혹은 관광객 등의 "관계 인구로 전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회적 해법 제안

행사 개요

포럼명 :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기간 : 2024. 5. 10(금) ~ 5. 11(토)

장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주제 :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진화와 혁신

세션1 지역축제산업 성장과 로컬관광의 전략적 관계

세션2 K-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세션3 인구소멸 관점에서의 지역축제의 역할

대상 : 국내외 축제 및 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문화와 지역개발 관계자

주최 : 남원시

주관 : 춘향제전위원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포럼 프로그램

2024년 5월 10일(금)		
13:00	개막식	**개회사** 최경식 / 남원시장
13:10	인사말	**축사 및 환영사** 전평기 / 남원시의회 의장, 이광연 / 춘향제전위원장 외
13:30	축하공연	남원시립농악단
13:40	기조강연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역할 /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세션 1. 지역축제산업 성장과 로컬관광의 전략적 관계		
14:00 ~ 15:50	세션 1	**해외사례** 레베카 보토니(Rebecca Bottoni) / 이탈리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위원장
		발제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좌장 김창수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원장 **토론** 박상언 /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토론** 김은진 /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前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BK21플러스사업단 학술연구교수
15:50		휴식
16:00	축하공연	일본 히오키시 문화사절단
세션 2. K-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16:10 ~ 18:00	세션 2	**해외사례** 알랭 티마르 /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인 집행위원, 아비뇽 떼아트르 데 알 극장장
		발제 김지선 / (주)티앤엘 대표,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좌장 이흥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前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토론** 최준호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前 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 춘천인형극축제 예술감독 **토론** 류인평 /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장
5월 11일(토)		
세션 3. 인구소멸 관점에서의 지역 축제의 역할		
10:00 ~ 12:00	세션 3	**해외사례** 스가와라 켄스케 / (주)오마츠리재팬 최고 프로젝트 책임자
		발제 서병로 /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교수,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좌장 오훈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토론** 김동영 /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 팀장 **토론** 이선철 /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등 겸임교수

포럼 참여 안내페이지

실시간 AI 통역 사용하기

이번 포럼은 발제 및 토론을 “실시간 AI통역”을 통해
희망하는 언어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 우측과 본인 핸드폰에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자막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 QR코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실시간 AI 통역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세션 질문하기

각 세션 중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토론 시간에 세션 좌장이 취합해서 해당하시는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션 질문
QR코드를
찍어주세요

만족도 조사

포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 관광, 지역을 이야기한 포럼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족도
QR코드를
찍어주세요

포럼장 사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1) 남원시 공공와이파이 Public Wifi Secure / 비번없음
2) 춘향문화예술회관 와이파이 iptimeA20045G / cnsgid5720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기조강연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역할

김세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역할
The Role of Local Festivals in Regional Activation

기조강연

김세원 Sae-Won Ki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Ph.D / President of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세션 1

지역축제산업 성장과 로컬관광의 전략적 관계

해외발제
레베카 보토니
이탈리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위원장

국내발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좌장 김창수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원장

토론 박상언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토론 김은진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前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BK21플러스사업단 학술연구교수

해외발제

레베카 보토니 Rebecca Bottoni

이탈리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위원장
President of Italy Ferrara Buskers Festival

국내발제

류정아 Jeungah Ryo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Ph.D in Cultural Anthropology(EHESS) Visiting chair researcher fellow a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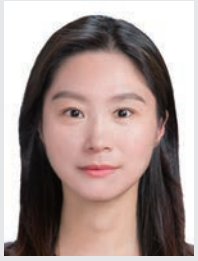
김창수 Chang-Soo Kim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원장
Professor Dean, Graduate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Kyonggi University

토론

박상언 Sang-On Park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President of Regional Cultural Society / Chairman of Future Content Culture Institute



토론

김은진 Eunjin Kim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前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BK21플러스사업단 학술연구교수
Research Fellow at Busan Development Institute
Former Research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해외발제

레베카 보토니 Rebecca Bottoni

이탈리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 위원장
President of Italy Ferrara Buskers Festival

FERRARA FESTIVAL BuskerS

1.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Ferrara Buskers Festival) 및 그 예술 작품에 관한 소개

1980년대, 축제의 기원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 프로젝트는 1987년에 시작되어 이듬해 8월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발단은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장장이였던 스테파노 보토니(Stefano Bottoni)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페라라(Ferrara)라는 도시 전체를 거리의 음악가들에게 바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품었다. 이 도시의 역사적인 거리에서 연주하고 공연하는 것은 당시에는 금지된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이탈리아는 물론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이벤트를 구현하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8년 8월 22일은 페라라가 '음악'이 된 버스커 페스티벌의 첫날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페라라의 고유의 의미가 페스티벌 이름에 잘 담겨있다. 작지만 역사적인 도시,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예술과 음악으로 잘 알려진 도시와 있기에 더욱 특별한 행사다.
페라라는 르네상스 도시(유럽 최초의 "근대 도시")로 야외 무대에 딱 어울리는 도시다. 페라라는 관광 해변 도시가 아닌 작은 지방 도시다. 8월에 페라라는 매우 더운 "사막"이 된다. 특히 여름 휴가시즌인 8월에는 페라라 대부분의 호텔, 레스토랑 및 상업 활동이 이탈리아의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는다.
제1회 버스커 페스티벌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20여팀의 유럽 출신 밴드와 아티스트가 초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여행이 쉽지 않았기에 페스티벌을 통해 페라라 시민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음악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동네거리를 걸으며 낯선 얼굴을 바라보고 알 수 없는 화음과 가사에 귀를 기울였다. 무명 뮤지션들은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1989년, 인기 뮤지션이자 작곡가인 루치오 달라(Lucio Dalla)가 버스커 페스티벌에 깜짝 참가한 이후로 페스티벌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1990년대, 축제의 진화

1990년 버스커 페스티벌의 공식 로고가 등록되었다. '뮤지시스타 디 스트라다'(거리의 음악가) 대신 '버스커'라는 단어가 이탈리아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90년대에는 매년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초청되었고, 각 페스티벌은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속한 특정 '주최국'을 기념했다. 이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 국가 외에도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초청되어 행사에 참여했다.

90년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신규 국가들이 탄생했으며, 그 중 일부는 페스티벌에서 '주최국'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외국'의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소통하기 시작했다.

FERRARA FESTIVAL BuskerS

현재, 예술적 연구, 공연 및 창작물

37년 동안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버스커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도입했다. 실제 국가에 방문해 탐색하거나, 이제는 “구식”인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이제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발전이 페스티벌에서도 나타난다. 버스커 페스티벌은 세상의 큰 부분을 대표하는 '소우주'를 포괄한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며 조화를 이룬다. 모두가 음악과 거리 예술이라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언어와 힘으로 연결된다.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은 대중(관중)의 존재가 기본이며 아티스트와 대중 사이에 거리가 없는 단체행사다.

버스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관중으로 변신시키고, '모자'라는 접촉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극장도, 무대도, 조명도, 화려한 장치도 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리의 예술가들, 이것이 바로 축제의 핵심이다. ‘모자’는 그저 공연을 즐기고 감사의 의미로 돈을 모으기 위한 용도일 뿐이다.

2. 축제를 통한 관광 발전과 우리의 미래

페스티벌을 통한 페라라 관광 활성화

문화 행사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 문화 덕분에 이벤트 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물관, 기념물 및 장소의 건축물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요소에 관심이 있는 청중을 '가로채는' 것이 가능해졌다.

문화의 가장 넓은 비전은 더 풍부하고 강렬한 참여를 유도해 균형 잡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은 곧 페라라 도시 상업활동의 성수기를 의미한다. 8월 호텔 객실당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축제 기간 중 토요일에는 97%의 객실이 매진된다. 이는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에밀리아 내륙의 도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페라라 버스커 행사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수준을 잘 나타낸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은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개발했다. 우선 소음이나 물리적 공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친환경적이다. 오히려 페라라의 보도는 과도한 구조물 없어 음악과 공연이 가득한 '무대'가 된다. 뮤지션과 예술가들은 거리나 인도에서 공연을 펼친다.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참석하고, 북부 및 중부 지역 관객이 가장 많으며 일부 관객은 해외에서 등록하기도 한다. 보통 하이킹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고, 일부는 페라라에서 숙박하기도 한다. 연령은 25-50세가 주요 타겟이다. 대부분의 관객은 페라라 및 인근 지역 거주자다.

FERRARA FESTIVAL BuskerS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2023년까지는 무료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2024년 페스티벌(2024년 8월 21~25일)부터는 입장권을 도입하여 관심있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예술 및 조직 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적 투자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국가의 아티스트에 대한 비디오 제작 및 탐색 등을 목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길'이라는 주제와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심화하기 위한 강연과 워크샵도 마련될 예정이다.

페라라 버스커 페스티벌은 입지가 탄탄하고, 인정받는 브랜드로 다른 이벤트와 다양한 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이탈리아 도시에서 스핀오프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3. 한국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를 위한 유럽 축제에 관한 소개

유럽과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모든 행사가 축제는 아니지만, 시간적 특성과 주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3.1 루카 만화 및 게임(Lucca Comics and Games)

"루카 코믹스 앤 게임"은 수년에 걸쳐 주요 프로젝트를 탄생시키고 미디어 수준으로 확장한 축제 중 하나다. 60년대에 탄생한 만화를 위한 행사로, 판타지와 관련된 게임 및 영화 제작도 라인업에 포함하, 종종 국내 개봉도 진행한다.

조직 구조가 재단으로 발전하면서 입장 비용 등 자원이 배가되었다. 최근 몇 년간 루카 코믹스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판타지 영화 시사회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만화, 판타지 문학, 영화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해당 축제는 판타지 기대작 시사회의 새로운 목적지로 자리 잡았다. 영화 시사회를 포함하면서 루카 코믹스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코믹스 팬뿐만 아니라 판타지 영화계의 최신작에 흥미를 느끼는 시네필과 일반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3.2 라 노테 델라 타란타(La Notte della Taranta)

관광 차원의 또다른 행사로는 남부 이탈리아(풀리아, 정확히 살렌토)에서 열리는 "라 노테 델라 타란타"가 있다.

1998년에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약 5,000명의 관객으로 시작했다. 특히 풀리아의 전형적인 춤과 음악인 타란타(taranta) 등 민속음악의 발전을 추구하는 행사다. 매 축제마다 살렌토(Salento)와 기타 다른 전통 음악을 편곡하고 융합하는 마에스트로가 참여한다. 축제는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며 많은 이름있는 뮤지션들이 "타란타"에 대해 보여주는 대규모 콘서트다. 지난 행사에는 이탈리아 전역과 해외에서 약 250,000명이 참석했으며, 문화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행사의 좋은 예시다.

국내발제

류정아 Jeungah Ryo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Ph.D in Cultural Anthropology(EHESS) Visiting chair researcher
fellow a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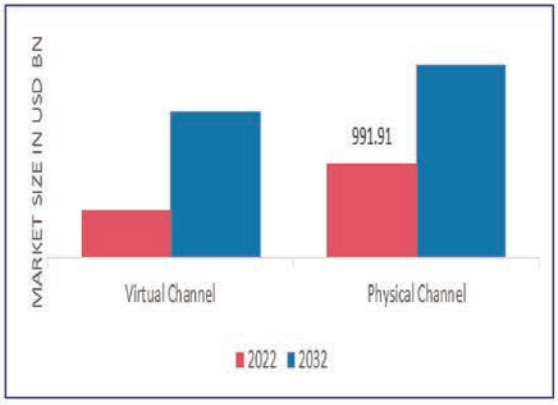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 제94회 춘향제, 2024.5.10,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지역축제산업과 로컬관광의 연계 전략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한국문화재재단 비상임이사

I. 축제이벤트와 관광효과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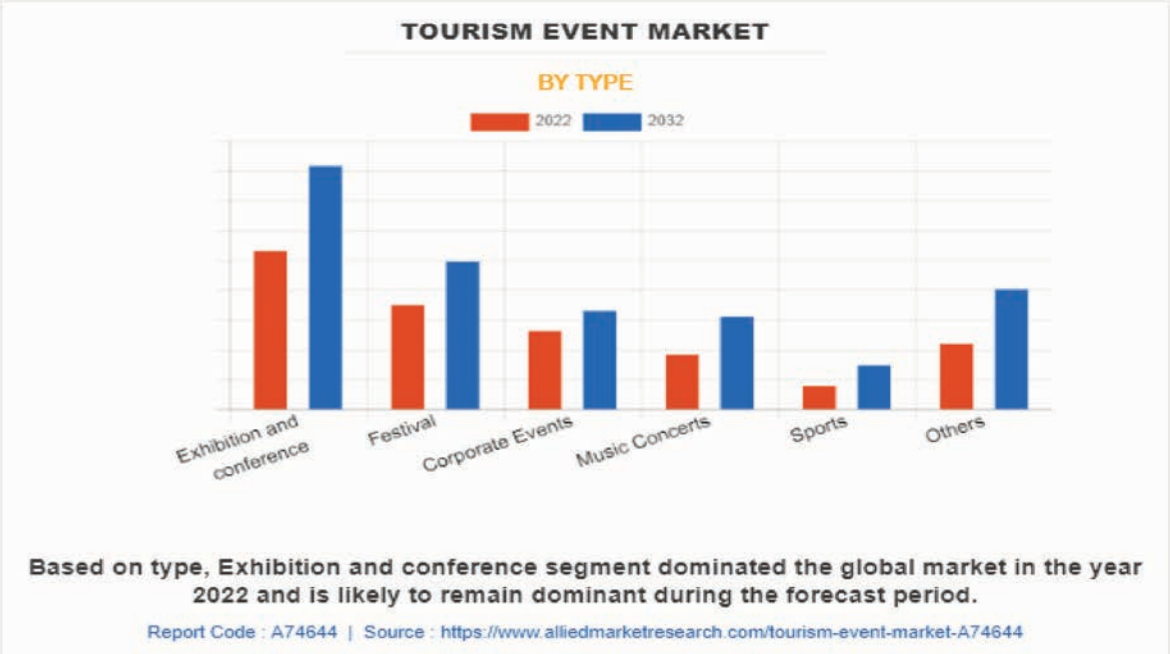
1.이벤트 관광 시장 변화 추세



Event Tourism Market Research Report Information By Type (Exhibitions and Conferences, Festivals, Corporate Events, Music Concert, Sports, Others), By Channel (Virtual Channel And Physical Channel), By Revenue Source (On-line registration, Off-line registration, Sponsorship, Others), By Age Group (Below 18 Years, 18-50 Years, Above 50 Years), And By Region (North America, Europe, Asia-Pacific, And Rest Of The World) –Market Forecast Till 2032.
ID: MRFR/CR/10970-HCR | 128 Pages | Author: Pradeep Nandi | March 2024

https://www.marketresearchfuture.com/reports/event-tourism-market-12492

2. 이벤트 유형별로 본 관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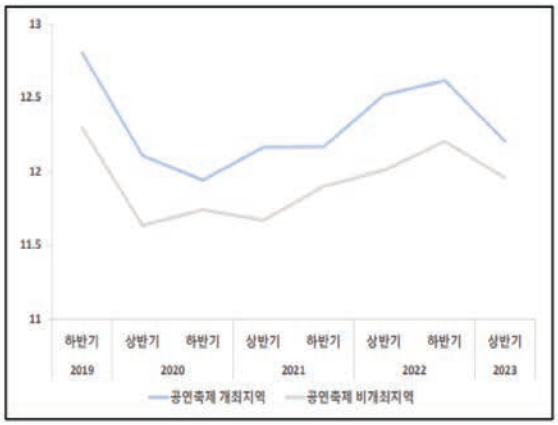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tourism-event-market-A74644

3. 축제이벤트와 관광효과 상관관계(한국사례)

〈표 3-7〉 공연축제개최 여부별 로그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공연축제개최	12.8	12.1	11.9	12.2	12.2	12.5	12.6	12.2
공연축제미개최	12.3	11.6	11.7	11.7	11.9	12.0	12.2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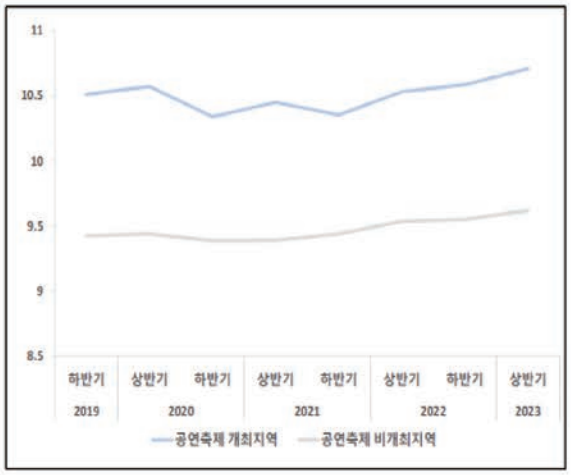
[그림 3-1] 공연축제개최 여부에 따른 로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반기별 추이



〈표 3-8〉 공연축제개최 여부별 로그 관광 관련 업종 신용카드 소비지출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공연축제개최	10.5	10.6	10.3	10.4	10.4	10.5	10.6	10.7
공연축제미개최	9.4	9.4	9.4	9.4	9.4	9.5	9.6	9.6

[그림 3-2] 공연축제개최 여부에 따른 전체 관광 관련 업종 로그 신용카드 소비지출 반기별 추이



윤수영, 김정림 외, 2023, [지역공연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미는 영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연구

II.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 가치 변화

1. 축제 개최 의미의 시대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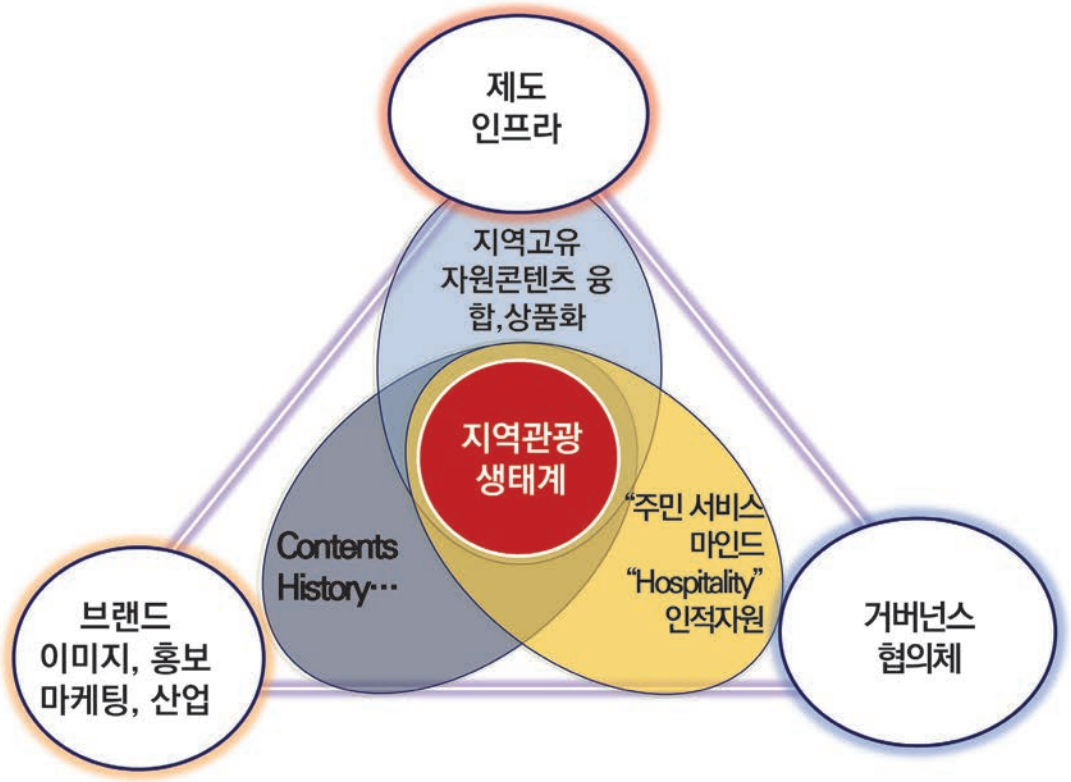
문화 가치/ 목적	1. 신기한 구경하기	2. 참여하며 즐기기	3. 소통하며 이해하기	4. 거리두고 탐색하기	5. 공감하며 상생하기
시기구분	70~80년대	90~2000년대	2010년대 이후	2020년대 초반	2022년 후반~
시기특성	아날로그	디지털	융합	팬데믹	2차 융복합
표현방식과 효과	• 여흥과 볼거리 • Attraction/ Spectacle	• 경험과 참여 • Experience / Participation	• 소통과 상호작용 • Interactive • Communication	• 온라인/사회적거리.초연결 효과성 • Distancing • Hyper-connecting • Effectiveness	• 상생과 경쟁력 • Symbiosis • 지속가능성 • 경쟁력과 효과평가 • 소규모/ 지역 범위
내용 구성전략	• 원형보존 • 자원소개	• 체험, 교육	• 콘텐츠 융합	• 간접경험 • 웹콘텐츠	• 크로스오버 융복합 • 직간접 소통 다변화
주요 콘텐츠/ 프로그램	• 역사·민속·전통 • 문화유산 강조	• 생태환경·특산 • 체험프로그램 • 지역정체성 강조 • 축제 브랜드 가치	• 역사전통·문화예술·기술과학·스포츠 • 엑스포 문화행사 • 디지털 기술 활용	• 자연환경 • 문화예술 • 산업자원 • 디지털아트 • 미디어아트	• 재해석된 역사와 전통 • 문화재생, 도시재생 • 자연과 문화 • 과학과 예술… • 환경과 예술, 문화, 과학 • 구역단위별 문화특성 강조
위기 항목	• 전통민속의 과도한 상품화 • 종교성진정성 훼손	• 축제 급증 • 관주도 • 거버넌스	• 기술력과 상상력의 부조화 • 문화와 관광의 갈등	• 세계적 전염병 피해 • 축제 고유성 훼손 • 축제생태계 파괴	• 급격한 축제욕구 증가로 안전성 위협 • 자발적 축제증가로 관리사각지대 발생 • 환경생태 위협

2.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경제효과

년도	지정축제수	입장객총수	내국인	외국인	경제효과 (백만원)	축제당 평균입장객 수	경제효과 축제 평균(백만원)
2001	31	13,252,229	13,112,885	139,344	441,861	427,491	14,254
2002	27	13,536,915	13,407,672	129,243	413,285	501,367	15,307
2003	30	16,104,595	15,945,536	159,059	596,498	536,820	19,883
2004	37	22,828,123	22,598,608	229,515	835,250	616,976	22,574
2005	45	32,741,486	32,402,768	338,718	1,017,175	727,589	22,603
2006	51	34,644,612	34,210,410	434,202	1,315,244	679,306	25,789
2007	51	36,417,206	35,868,000	549,206	1,584,157	714,062	31,062
2008	45	35,166,448	34,680,897	485,551	1,495,837	781,148	33,240
2009	45	27,612,897	27,170,126	442,771	1,452,094	613,620	32,269
2010	44	31,134,443	30,434,537	699,906	1,703,430	707,601	37,714
2011	27	16,460,326	15,946,857	513,469	745,877	609,641	27,625
2012	45	29,874,587	29,093,844	780,743	1,784,116	663,880	39,647
2013	42	29,418,580	27,759,214	1,659,366	1,642,233	700,442	39,101
2014	38	17,287,976	16,734,505	553,471	1,059,608	454,947	27,884
2015	44	17,587,666	17,050,425	537,241	795,653	399,720	18,083
2016	43	15,466,662	15,087,409	379,253	719,823	359,690	16,740
2017	41	14,845,945	14,278,930	567,015	809,615	362,096	19,747
2018	39	11,550,354			806,555	296,163	20,6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센터 축제 관련 자료 발표자 재구성

3. 지역관광 생태계 삼각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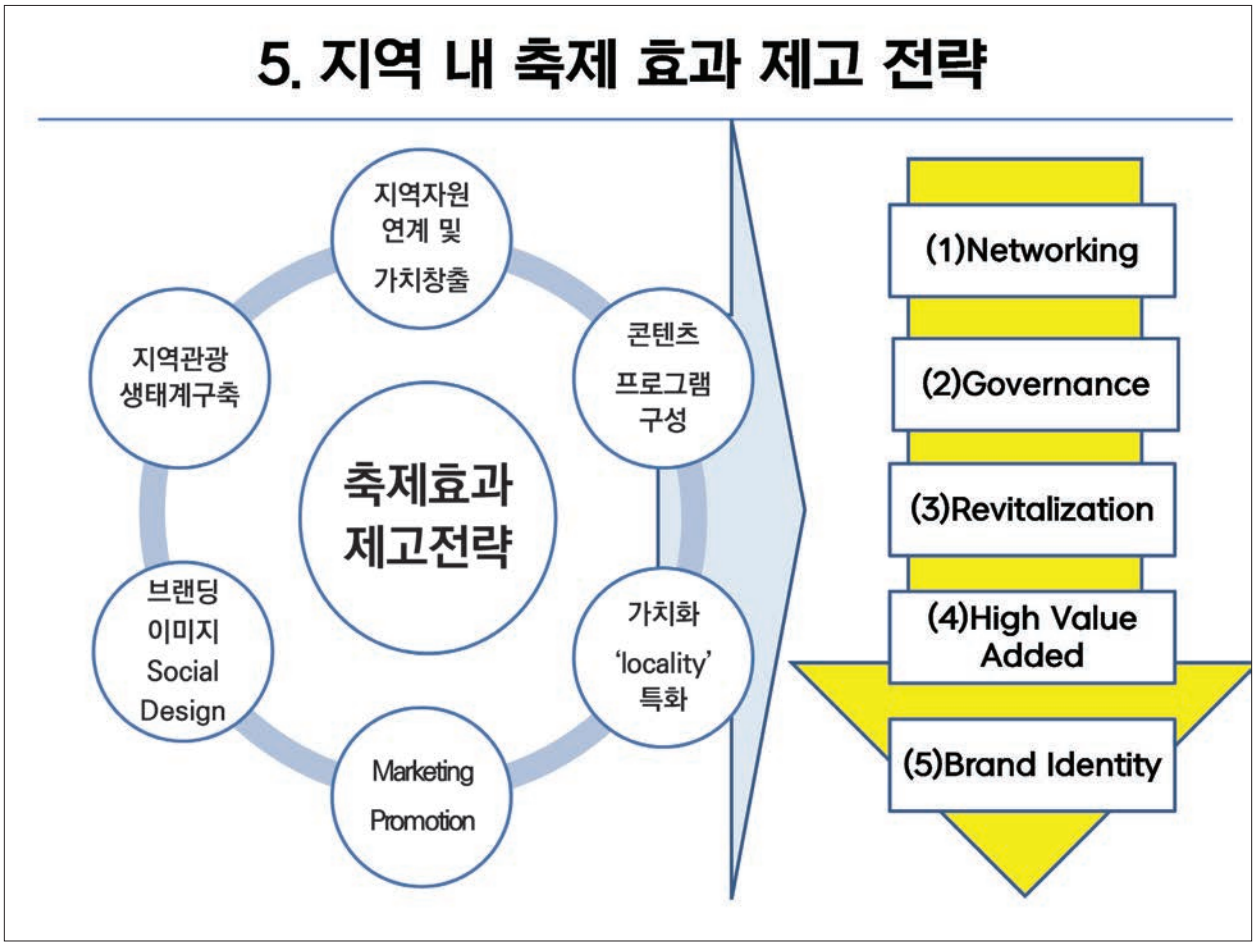


4.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

구 분	지 표	속 성	가중치	평가구분	평가방법
1. 콘텐츠(35)	1-1. 콘텐츠 차별성	비계량	10	전문가	현장, 서면
	1-2. 콘텐츠 적합성	비계량	7		현장, 서면
	1-3. 축제 핵심 소재 위기 대응 노력	비계량	4		서면
	1-4. 콘텐츠 활용 확산 노력	비계량	4		서면
	1-5. 관광객 콘텐츠 만족도	계량	10	소비자	온라인
2. 조직 역량 · 운영 (20)	2-1. 축제 전담조직 운영 지속성	비계량	3	전문가	서면
	2-2. 축제 전담조직 구성	비계량	3		서면
	2-3. 환경변화 대응 및 운영 역량	비계량	4		현장, 서면
	2-4. 축제 전문인력 양성 노력	비계량	3		서면
	2-5. 친환경 축제 구현 노력	비계량	3		현장, 서면
	2-6. 축제 인지도 및 인지도 증가율	계량	4	소비자	온라인
3. 지역 사회 기여 (25)	3-1. 지역주민 관여도	비계량	8	전문가	서면
	3-2.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비계량	9	전문가	서면
	3-3. 지역주민 지지/호응도	계량	8	지역민	온라인
4. 자체 관리 시스템(10)	4-1. (필수) 성과관리시스템	비계량	6	전문가	서면
	4-2. (선택) 기타 자체 지표	비계량	4		서면
5. 안전관리체계 (10)	5-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비계량	3		현장, 서면
	5-2. 프로그램 안전관리 체계	비계량	2		현장, 서면
	5-3. 안전교육 실행	계량	3		현장, 서면
	5-4. 안전관리 및 보완 노력	계량	2		서면
가점	열린 축제 실천	비계량	최대 2점		현장, 서면
	성인지 감수성 실천	비계량			
감점	과도한 예산지출 수반 프로그램(연예인 등)	비계량	최대 -2점		현장, 서면
	주제 부판 의례 식순/행사 과도한 포함	비계량			
합 계			100	-	

- 지역축제를 통한 직접적 지역산업 및 경제효과 제고 노력 평가항목 없음
- 예)축제재정자립도 가능성, 축제상품개발, 특산품판매정도, 지역고유음식개발 정도 등
- 축제 관람객 수만으로 사후적 재원지출의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간접적 효과 산출방식 탈피 필요
- 축제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체계 구축의 가능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음
- 여타 문화예술축제와 차별화하여, 지원방식과 평가지표의 2원화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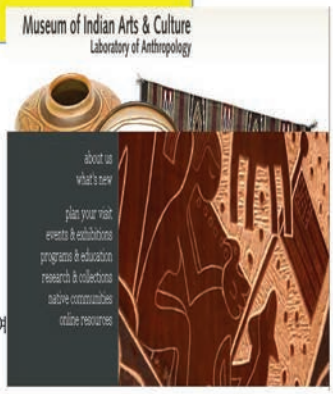
III. 지역 기반 축제의 관광효과 제고전략

(1) Networking

- 역사사실/문화/전통유산 등 자원 연계
- 전통과 민속의 예술융합콘텐츠 개발
- 인적자원, 기관 활동 연계

미국 산타페시: 국제민속예술축제

- 아메리카 원주민이 거주하던 뉴멕시코주에 16세기부터 이방인이 몰려들기 시작-골드러시의 시작
- 산타페시는 미국원주민의 전통과 현대 원주민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유지하고 보존
- 민속예술 전통은 리오그란데 강 유역의 푸에블로 인디안 문화 및 16세기 스페인 식민지시대의 문화 등에 근거
- 도자기 공예, 직물, 바구니 세공, 구슬공예, 보석, 목각 그리고 주석세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산업이 발달
- 인디언의 전통예술 활동이 예술 산업으로 연계되어 갤러리 운영, 축제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공연으로 표현
- 민속예술의 영향을 받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육성을 위해 마련된 '산타페 디자인 주간'
- 매년 7월 개최되는 "Santa Fe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에는 34개 나라, 95명 의 예술가들이 참여
- 판매 금액 약 20억 원, 약 17,000명 아트마켓에 참여, 510명의 자원봉사자
-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 국가에서 수집한 130,0000여 점의 민속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민속예



New Mexico Museum of Art
© Junghyun Kim

Museum of Contemporary Native Arts © Junghyun Kim

- 산타페시는 1950년 이후 산타페의 도시에 지어지는 모든 신축 건물은 반드시 어도비 양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3층 이상의 현대 양식 건물을 허락하지 않음
- Adobe 는 모래, 찰흙, 물 등과 유기물질, 섬유등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천연 건축 재료

https://www.jungle.co.kr/magazine/200475

- 인디안 민속공예'로 창조도시네트워크에 등록됨
- "Santafe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

Santa Fe Rail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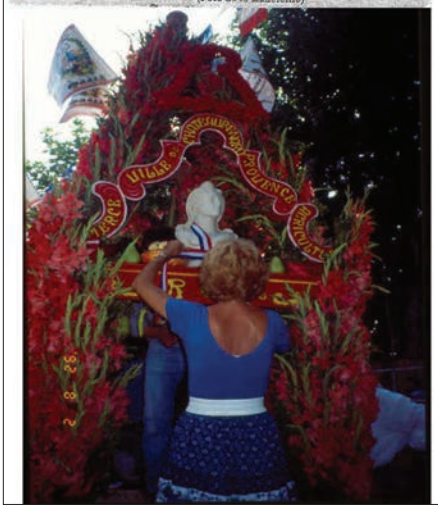
(2)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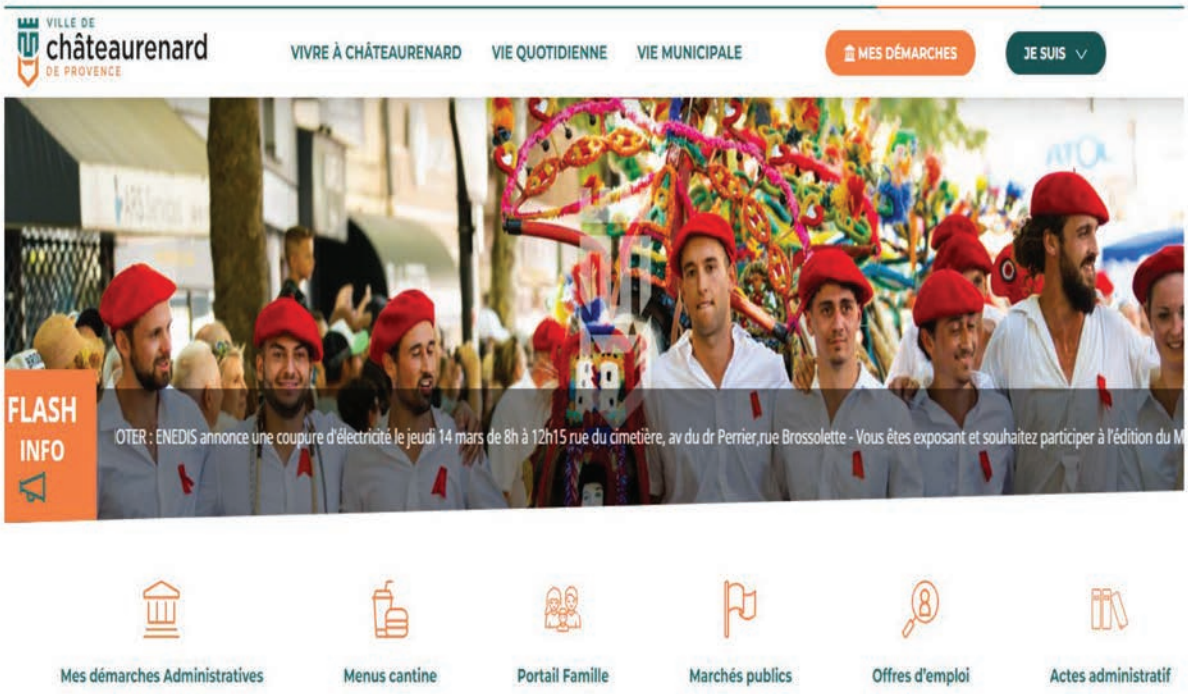
- 인력자원 활용 효율화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자발적 주민주도 축제협력시스템 구축
- 민관산학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자기 주도적 관광생태계 구축

프로방스 샤또르나르, 마드랜느축제: 갈등의 축제적 치유

Chateaurenard 마을 내의 수레 축제

- Madeleine 축제: 공화주의, 사회주의 경향, 프랑스혁명정신과 현대농민사회 상징





1982	11,072	+0.06%
1990	11,790	+0.79%
1999	13,070	+1.15%
2007	14,495	+1.30%
2012	15,934	+1.91%
2017	15,814	−0.15%

- 인구 수 매년 증가
- 일년에 약 70여 개 축제 개회
- 다양한 지역주민 주도 자발적 결사체(약 50여 개 결사체) 활동

온타리오 마늘축제

The idea of staging a garlic festival germinated from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in 1997 and has quickly become one of eastern Ontario's most anticipated annual community festivals.

eaconherald.com/news/local-news/stratford-garlic-festival-returns-for-15th-year-sept-9-and-10

https://cornwallcityurism.com/event/eastern-ontario-garlic-festival-2/

Peter McClusky, 2015, *The Story from farm to festival, The History Press*, Charleston, SC. 참조함

(3) Revitalisation-Storytelling

- 지역특화 자원 상품화를 통한 문화재생 및 가치회복
- 문화-예술-기술-관광 자원의 창의적 융복합
-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반영
- 폐산업자원의 문화관광자원화
- 로컬리티 특성화 지향 지역개발

영월군 단종문화제: 역사적 사실과 예술의 결합으로 정체성 확장

단종묘, 장릉

20여 개 박물관

공립	별마로천문대
	난고김삿갓문학관
	단종역사관(장릉)
	동강사진박물관
	영월동굴생태관
	강원도탄광문화촌
	동강생태정보센터
	라디오스타박물관
	술샘박물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사립	동강생태공원영월곤충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국제현대미술관
	묵산미술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영월화석박물관
	호안다구박물관
	쾌연재도자미술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영월종교미술박물관
	영월초등교육박물관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인도미술박물관
	만봉불화박물관
	영월음향역사박물관
	베어가곰인형박물관

리버풀(55만 2천) 비틀위크페스티벌: 지역정체성 재설정

- 전통적 어업도시,제2차 세계대전 후에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쇠퇴
- 열악한 경제 도시로 전락했다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음
- 지역정부, 중앙정부 및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공조하며 문화도시로서 거듭
- 1980년대부터 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시작
- 세계적인 미술관인 테이트 리버풀, 비틀즈 스토리(박물관)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
- 문화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영화, 비디오, 방송분야에 많은 예산 지원

리버풀의 비틀즈 경제효과

- 비틀즈 자료전시, 상품판매 '비틀즈 스토리'-연 평균 25만명
- 비틀즈 초기공연 장소 '캐번 클럽' 80만 명
- 존레논과 폴매카트니 어린시절 집구경 미니버스 투어 1만여명
- 리버풀 전체 일자리 23만800개 가운데 비틀즈 관련 일자리는 2335개(리버풀 대학교와 리버풀 존무어스 대학교 연구자료)
- 비틀즈가 기여하는 경제효과 연간 819만 파운드(약 1200억원)
- 비틀즈 관련 지역 경제는 연간 15%씩 성장
- 비틀즈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간 최대 200만명
- 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16154584, 2017-12-02

리버풀의 '비틀즈'

✓비틀즈의 고향, 2008년에 유럽문화수도 지정

✓7,000개 행사와 공연 유치, 1,500만 명이 방문

✓8억 파운드(1조 6천억 원) 경제효과

(4)High Value Added

-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의 개발 및 특성화
- 글로컬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관광산업 자생적 일자리 창출
- 창의적 관광스타트업 지원체계 구축

진주 유등축제 | **태백 눈꽃 축제** | **강릉커피축제**

보르도 "포도주축제"

- '신세계 포도주(New world wine)' 생산 급증으로 포도주 산업 위기
- 프랑스의 최고급 포도주 가치 보존노력으로 2002년부터 보르도 포도주 축제 개최

멕시코 "죽은 자들의 축제"

- 죽은 자들의 날은 멕시코 토착 공동체의 일상에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과 영적·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 **아즈텍문화+스페인 가톨릭모든 성인의 날+할로인데이+추수감사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71596#home

세계의 축제, 다빈치출판사

https://www.google.com/url?sa=i&url

(5)Brand Identity

- 공동체 구성원이 공감하는 기억의 축제 콘텐츠 활용
-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적극 홍보
- 고유 자원 융복합으로 연대감/자부심 원천 재구축

프랑스 방데의 축제 공연: 주민 참여 역사공연의 자원화

- 방데(Vendée)는 프랑스 중서부 도시로 프랑스혁명 시기 방데전쟁으로 인해 30~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 20세기 중반 이후 방데는 프랑스 혁명기에 지역공동체가 체험했던 집단학살의 기억을 문화요소로 전환
- 야외역사극 시네세니(Cinéscénie, 방데전쟁을 주요 소재로 한 대규모 야외역사극)와 역사테마파크 퓌뒤푸(Puy du Fou, 식물원, 조류전시장, 화원 등 휴양시설을 비롯하여, 역사마을 4곳과 60여 종류의 공연쇼를 보유한 복합 위락시설) 건립
- 모든 것들이 지역 주민 주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목적으로 설립한 퓌뒤푸협회가 주체적인 역할
- 1977년 방데 지역주민들은 비영리 문화기업 퓌뒤푸협회를 자발적으로 조직·창설
- 1978년 '오늘 저녁 방데(Ce Soire, Vendée)'라는 제목의 조촐한 지역축제 공연에서 출발, 대본과 무대기술효과 보완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41년째 상업적 흥행을 지속
- 정부의 공적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 기관으로 인정
- 자원봉사와 임금제를 결합한 운영방식을 통해 매년 약 3,800명의 자원 봉사자와 1,900명의 직원을 고용

방데 지방 가톨릭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학살 그림

노팅힐카니발: 인종 간의 벽 허물기

- 삼바페스티벌은 흥겨운 리듬과 춤 이상의 의미 다문화융합과 고통스런 노예역사의 흔적을 보임

- 1964년 시작된 노팅힐 카니발
- 영국 런던의 노팅힐 지역에서 주로 아프로-카리브(Afro-Caribbean) 이민자들이 1964년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자 8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개최하던 행사에 기원

감사합니다..

토론

박상언 Sang-On Park

한국지역문화학회 회장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President of Regional Cultural Society
Chairman of Future Content Culture Institute

토론문 1)

지역축제가 오래도록 발휘해온 사회문화적 가치와 함께 적어도 최근 수십 년 동안 중시해온 경제적 가치를 아울러 창출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산업화가 전제 또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의 다양한 소재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들이 상품이며, 이들 상품과 관련한 생산과 판매 활동의 집합이 산업이기 때문이다. 생산요소, 생산공정, 생산기술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생산물,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산업이므로 축제에 대해 산업적 접근 태도를 가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지난 해에는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가 있었다.(「문화관광축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여기서 토론자가 주목한 한 가지는, 우리나라 축제산업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는 선도 사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일차원적인 산업화 초기의 특성을 보이며, 경제적 차원으로는 우리나라 축제산업이 선두 플레이어가 없는 분화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토론자는 우리 축제생태계의 현 초기산업화 단계에서 단순산업화, 복합산업화 단계로 진보하는 방법이 새삼 궁금해졌다.
지역축제의 산업화 전략은, 지역축제가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개최됨에 따라 동일한 소재가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이러한 이유로 그 내용의 독창성이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가 과학적·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그 대응으로부터 우선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축제 그리고 그 콘텐츠 또한 상품으로서의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축제 정책은 정부 회계에 근거한 세입·세출 관리 등 단위행사 위주의 일회성 지원을 반복해 왔다는 등의 이유로 축제산업생태계의 형성이나 축제서비스의 전문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각 축제의 유래와 명칭이 다르다 해도 그 구현되는 모습은 동형화(isomorphism)나 모방주의(metooism) 일색이다. 그래서 앞의 연구는 관 위주로 구상되어 거의 동일한 잣대로 평가·지원되는 정부의 현 지원정책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그리고 축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新)문화관광축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도 싶으나 워낙 기본적이고도 쉽지 않은 사항이라 이 자리에선 묻어두고, 발제문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린다.

질문1. “축제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체계 구축의 가능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발제자께서는 지역 기반 축제의 관광 효과 제고 전략으로 (1) Networking (2) Governance (3) Revitalisation-Storytelling (4) High Value Added (5) Brand Identity 등 다섯을 들면서, 국내외 축제의 사례와 함께 각 전략별 세부 과제 또는 방

법을 제시하셨는데, 가감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전략 과제와 방법과는 별도로 토론자는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비 사항으로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쉴자리, 잠자리를 들면서 이를 '네 거리 두 자리'라 부른다. 이곳 남원은 우리나라 근대 축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제가 매해 열리는 도시다. 축제로서의 춘향제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발현 및 인정되고 있으나, '네 거리 두 자리' 관점에서는 물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산업화 측면에서, 또 관광과의 연계 전략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춘향제의 글로벌 관광 전략 등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으나, 이에 앞서 이번 섹션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나 드린다.

질문2. 크고 작은 도시 거의 모두가 역사적 장소, 인물, 사건 등을 Storytelling하고, Brand Identity화(化)하면서 축제로 만들고 있다. 남원의 춘향을 넘어 한국의 춘향은 엄청난 스토리이자 브랜드이고 국제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다. 94회라는 유구한 횟수를 자랑하는 춘향제가 그 관광 효과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산업과 로컬관광과의 연계 전략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토론

김은진 Eunjin Kim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前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BK21플러스사업단 학술연구교수

Research Fellow at Busan Development Institute
Former Research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토론문2)

○ 1995년 국내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축제는 지역 자원/콘텐츠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며 지역 이미지 제고의 주요 전략임을 발제를 통해 살펴봄
- 특히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한 축제 주최자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만들어내고, 축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큰 노력 중

○ 두 발제자께서 명확한 주제와 콘텐츠를 지니고,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이 담긴 축제를 지역관광 생태계를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할 때 축제가 성공적으로 지속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제 내용을 통해 제시

○ 두 분의 주제 발제 내용에 큰 공감을 하면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함

- 첫 번째, 축제의 플랫폼적인 특성에 주목해야함
  - 축제에서는 다양한 자원과 콘텐츠, 지역특산물, 인적자원, 행정력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이 모여 축제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축제의 가치가 창출
  - 특히, 축제는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공유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국내의 축제는 행사를 주최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사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지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를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경향 낮음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의 일부로 축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축제의 가치와 방향성 논의 필요
- 두 번째, 축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함
  - 축제에도 체계가 필요하며, 축제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맞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축제의 기획, 홍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축제 상품 및 서비스, 고객 홍보 등 고객접점 측면, 조직역량, 파트너 관리 등 인프라 측면,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
- 세 번째, 축제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야함
  - 앞서 발제자께서도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의 한계를 말씀하셨으며, 최근에는 OECD에서도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의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경제,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할 것을 제시

- 글로벌 관광객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축제의 성장과 지역관광의 발전을 모색해야함

○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게 질문을 드리고자 함

질문 1. 페라라 버스커스 축제의 경우 올해 37년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축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재원과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질문 2. 시대적 추이에 따라 축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심에는 콘텐츠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축제와 로컬방문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할 것인지 '춘향제'를 사례로 생각해주시는 바를 듣고 싶다.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세션2

K-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해외발제
알랭 티마르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인 집행위원, 아비뇽 떼아트르 데 알 극장장

국내발제 **김지선**
(주)티앤엘 대표,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좌장 **이흥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前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토론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前 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 춘천인형극축제 예술감독

토론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장

해외발제

알랭 티마르 Alain Timar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인 집행위원, 아비뇽 떼아트르 데 알 극장장
Theatre Director Artistic Director of Theatre des Halles
Exclusif Committee Member of Festival d'Avignon

국내발제

김지선 Jisun Kim

(주)티앤엘 대표,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CEO of TNL Consulting Company that specializes in planning and evaluating festivals

좌장

이흥재 Hungjae Le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前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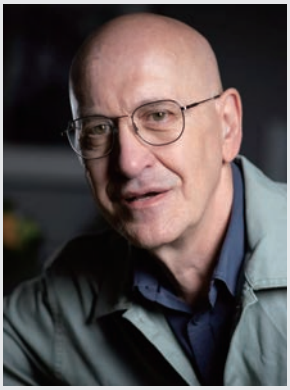
최준호 Junho Choe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前 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 춘천인형극축제 예술감독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rtistic Director of Festival Creative Seongsu & Chuncheon Puppet Theatre Festival

토론

류인평 InPyong Ryu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장
Professor Dept of Tourism Management Jeonju University
Chairman of Corporation Regional Tourism Culture Development Council



해외발제

알랭 티마르 Alain Timar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인 집행위원, 아비뇽 떼아트르 데 알 극장장

Theatre Director Artistic Director of Theatre des Halles
Exclusif Committee Member of Festival d'Avignon

축제에서 전통과 그리고 현대?

남원 춘양제와 아비뇽(Avignon) 페스티벌에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

(PPT 02)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다양한 예술 공연을 아우르는 문화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원이나 아비뇽(Avignon)이나 축제 자체는 여러 종류의 행사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게다가 두 도시 모두 풍부한 역사와 주목할 만한 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어 축제의 중심이 되는 볼거리로 손색이 없다. 축제는 이제 유행이다. 관객의 규모가 점점 더 크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여가 사회”와도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및 기타 예술 분야에서 축제가 다루는 다양한 분야는 새로운 형식과 전통, 혁신과 레퍼토리 간의 끊임없는 대화는 물론 작품, 아티스트 및 관객 간의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남원, 프랑스의 아비뇽,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Edinburgh) 등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오늘날 축제는 지속적으로 관객을 지속 발전 및 갱신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래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각 축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도전과제는 공연예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형태를 발명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아비뇽 페스티벌 또는 도시와 인간의 만남의 사례

(PPT 03)

"하늘, 밤, 글, 사람, 파티".

이 단어들은 팔레 데 파프(Palai des Papes), 퐁 다비뇽(Pont d’Avignon), 성벽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인 중심지인 아비뇽에서 장 빌라르(Jean Vilar)가 어떻게 페스티벌 아비뇽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장 빌라르는 1947년에 "세메인 디아트(Semaine d’art)"를 설립했다.

(PPT 04)

이후 아비뇽 페스티벌은 연극의 국제적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공연 축제 중 하나다. 매년 7월이면 아비뇽은 도시 자체가 야외극장이 되어 수많은 인파가 시테 데 파프(City of the Popes) 광장으로 몰려들며 연극계의 거장들과 젊은 배우들을 볼 수 있다.

(PPT 05)

수년에 걸쳐 아비뇽 페스티벌은 전설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마치 밤, 돌, 도시 속에서 연극이 만들어지고 재탄생한 것 같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대중 극장이라는 개념을 선도했으며,

분권화, 문화정책의 실험실, 대중을 발명하는 공간, 세계와 그 위기를 반영하는 무대라는 개념을 주도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여전히 아비뇽 페스티벌은 정치적, 미학적 함의에서도 우수한 현대 행사로 남아있다.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여정을 통해 아비뇽은 교황의 도시를 문화역사의 수도로 만들었다.

아비뇽과 거의 비슷한 인구를 가진 남원시는 아비뇽과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에게 뛰어난 건축적 유산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이 축제 관객들에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비뇽 축제와 마찬가지로 춘향제는 오래동안 유지되온 역사가 깊은 축제다. 춘향의 역사와 장 빌라르의 신화는 남원과 아비뇽의 도시를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준신화적 인물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특히, 현대성과 새로운 형태에 대한 진화와 개방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와 전통은 현재와 미래에 영감을 주어야 한다. 남원이든 아비뇽이든 길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PPT 06 to 17)

공식 아비뇽 페스티벌의 대체 행사인 '오프'

(PPT 18)

페스티벌 아비뇽 '인'과 함께 '오프'도 쇼가 열린다.

'오프'는 1966년 공식 축제 개최와 함께 시작되었다. 오프는 그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매년 1,200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500개의 다양한 쇼를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오프 기업들은 전문가의 눈에 띄어 자신의 공연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오프는 페스티벌은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처럼 조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PT 19)

아비뇽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

4주 이상 아비뇽 도시 전체가 훌륭한 쇼로 가득한 극장 무대로 변한다. 인세로 알려진 공식 축제는 약 40개의 다른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반면 오프 페스티벌은 오래된 예배당, 정원, 마을 회관, 차고 등 도시 구석구석에서 진행된다. 매년 '오프' 개막날 저녁에는 축제 기간동안 공연을 펼칠 수천여 개의 기업이 코스튬을 입고 퍼레이드를 한다. 도시 전체가 축제와 함께 활기로 가득찬다. 아비뇽과 마찬가지로 남원에서도 거리의 활기는 축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축제는 마을 주민의 통합에 기여하고 축제 참가자를 넘어 소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PPT 20 to 35)

테아트르 데 알(Théâtre des Halles), 아비뇽의 무대이자 상설 극장

(PPT 37)

필자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테아트르 데 알은 아비뇽의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13세기에 지어진 유적지 클로트르 생트 클레어(Cloître Sainte Claire)에 자리한 상설 공연장이다. 이곳에서는 일 년 내내 연극과 현대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추구한다. 호기심 많은 관객이 프로그램의 예술적 제안을 충실히 따르고 지지한다. 필자는 이곳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하고 전 세계의 아티스트와 회사를 초청하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공연장은 국제적인 예술에 매우 개방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한국인 아티스트인 이자람(Jaram Lee)와 팀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자람씨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봉 보야지 엠. 르 프레지던트'를 원작으로 한 '이방인의 노래(Le chant de l'étranger)'를 공연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현대 판소리로 각색한 이 공연은 축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관객과 공연 기획자에게 판소리라는 예술을 소개하는 진정한 발견이자 영감이 되었다. 사실 작가이자 연극 제작자인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d Brecht)가 판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거리두기라는 연극적 원리를 창안한 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아비뇽 페스티벌과 테아트르 데 알은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관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판소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자람 소리꾼이 판소리를 통해 전통의 현대성을 구현하고 큰 성공을 거둔 것을 통해 관객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객이 좋아할 만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현대적이고 전위적인 형태의 예술을 과감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테아트르 데 알은 아비뇽과 아비뇽 페스티벌이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현대 사이의 발견, 연구, 발명, 그리고 전통 연극 예술의 영속성과 끊임없는 재조명 사이의 대결의 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남원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PPT 37 to 48)

비교 가능한 두 도시, 남원과 아비뇽

(PPT 49)

두 도시는 많이 닮아 있다.

- 주목할 만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다.
- 특별한 역사적 배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비뇽은 교황의 도시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 축제가 열리며, 남원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또한, 아비뇽과 남원 모두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관객과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아비뇽 축제와 남원 춘향제의 공통된 도전 과제

(PPT 50)

아비뇽 페스티벌과 남원 춘향제는 현재 몇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 도전과제 1: 세계화

'지구촌'에서 아비뇽과 남원 페스티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제기되고 있다. 남원 춘향제가 아비뇽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춘향의 전설적이고 전통적인 사랑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세계화된 문화의 일부다.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핑계로 더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되살리고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젊은 작가들에게 춘향전을 주제로 글을 쓰고 새로운 세대의 감독에게 연출을 맡겨 춘향제와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더 잘 알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도전과제 2: 다른 공연예술과의 대결.

다분야 예술의 시대에 축제의 개념이 개방되고 확장되고 있다. 연극, 무용, 음악, 마임, 서커스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여러 분야의 융합은 새로운 관행과 관점을 연다.

- 도전과제 3: 컴퓨터 혁명 및 라이브 공연에서의 그래픽 아트와 컴퓨터 기술의 상호작용.

이제 영상 콘텐츠는 널리 보급되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 도전과제 4: 라이브 공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AI 기술의 등장.

현대성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한 전통 보존

(PPT 51)

남원 춘향제나 아비뇽 축제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 있고 혁신적이며, 주변 세계와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에 민감하고 반응해야 하며,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보존하거나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며, 동시에 신기술을 수용하고 현대성에 개방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PPT 52)

글로벌 수준의 질문이 필요하다. 컴퓨터와 기술이 인터넷 연결 속도로 교환되고 전송되는 사회, 아이디어, 글, 이미지 등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의 21세기의 전

망은 어떻게 될까? 신기술을 수용한다고 해서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까?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

(PPT 53)

남원, 아비뇽, 에든버러, 어떤 곳이든 인간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감각과 감정을 함께 보고, 듣고, 반응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 2022년에 겪은 격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켰다. 같은 공간에서의 친밀감과 더불어 몸과 마음의 친밀감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기이한 일 중에 하나다.

본질적인 가치 보존

(PPT 54)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컴퓨터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의 천재적인 발명을 증명한다. 하지만 컴퓨터는 도구일 뿐이다. 가상의 시대에도 축제와 라이브 공연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심지어 전통적인 가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다.

자신의 정체성 속으로 빠져드는 유혹, 국경을 닫고 사람들을 분리하려는 일부의 욕망은 인간의 호기심과 인간 간의 여행과 교류에 대한 필수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연극과 라이브 공연은 사회 및 문화 생활과 이러한 공통의 공유 생활의 순환에 필수적인 연결 고리다.

그러나 공연 예술을 통한 문화와 연극이 보편성을 지향한다면, 문화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보편성을 위해 이념과 정치적 장벽을 넘어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에 접근해야 한다면, 동시에 우리의 특수성을 보존함으로써 그들과 차별화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한 민족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상징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표현하며, 이 정체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PPT 55)

본 포럼의 참가자분들이 아티스트로서 또는 문화 지도자로서 해야할 임무가 있다. 바로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만남과 교류를 장려하고, 교차적 수정(fetilization)까지도 장려하며, 상호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PPT 56)

국내발제

김지선 Jisun Kim

(주)티앤엘 대표,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CEO of TNL Consulting Company that specializes in planning and evaluating festi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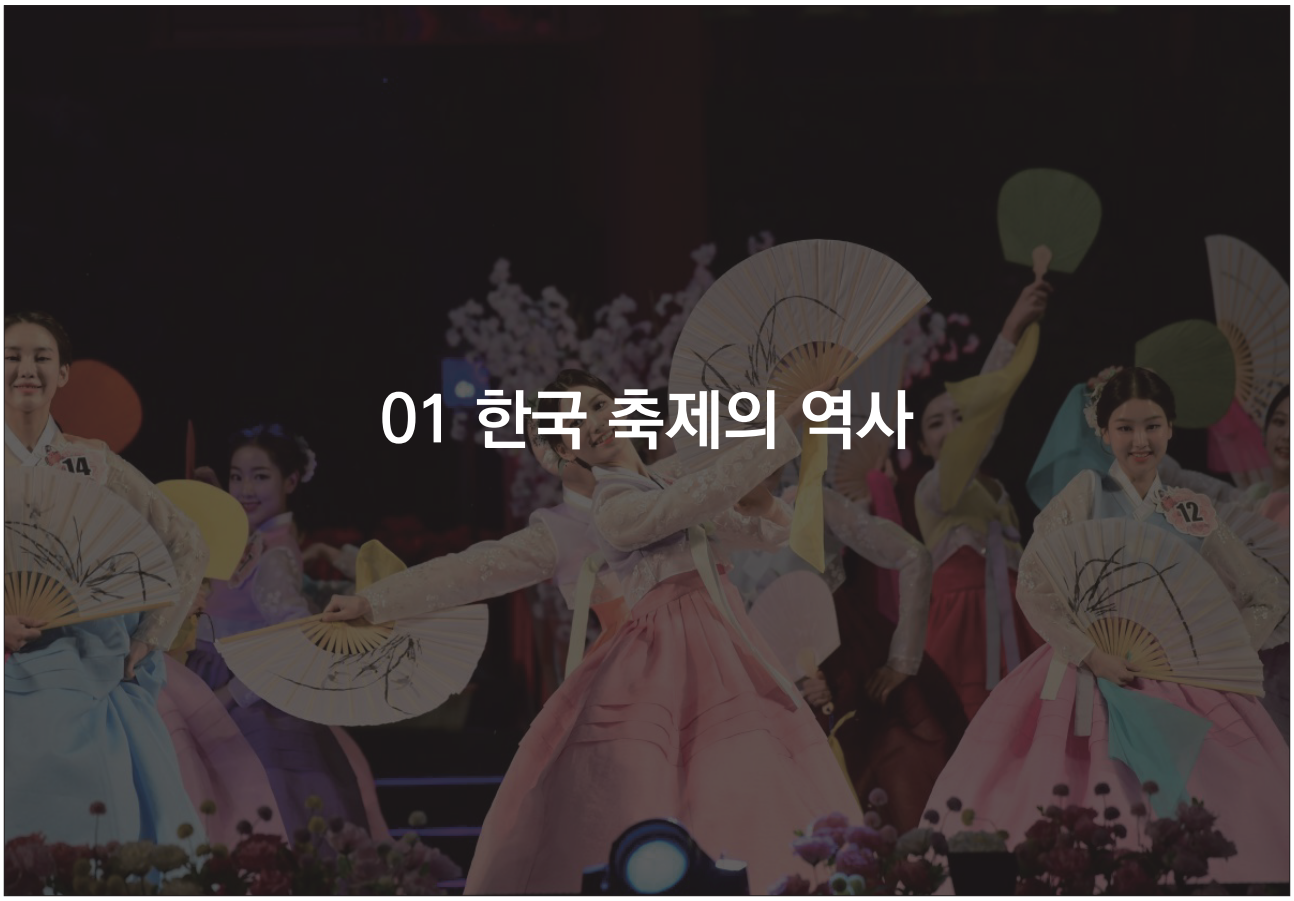
춘향제

Contents

01 한국 축제의 역사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 해방직후	근대·현대
특징	제천의식	국가 및 불교 차원의 축제	민간 차원의 축제		문화예술축제
목적	신에게 추수감사	국가와 왕실의 안녕	마을의 다산 및 풍요 기원		개인의 여가 지역의 놀이문화

출처: 이훈·김미정(2011). 한국 축제사

3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고대 축제의 특징은?

1. 한국 기층종교인 무(巫)의 의례이며, 축제임
2. 천신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음
3.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4. 음주가무가 함께 어우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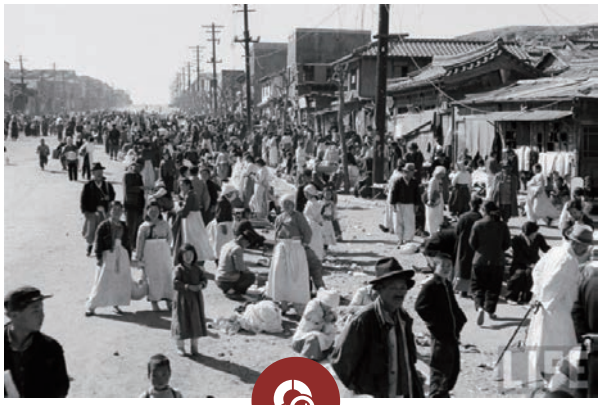
4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일제강점기(1910~1945)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공동체적 기반의
지역전통문화가 몰락 되고, 말살된 시기



한국전쟁(1950~1953)

남북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격변의 시기
한국의 전통축제(굿)들을 미신(迷信)행위로 간주하여 축소

5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문화관광축제

전통문화의 복원과 중흥(1960~1980)

전국민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지방문화중흥과 향토축제 형성

축제의 양적 성장(1990~2020)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로 폭발적인 축제의 양적 성장 시기

6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

7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인간은 근본적으로 축제의 인간(home Festivus)이자
동시에 환상의 인간(home fantasia)이다.

인간은 노동하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유희를 즐기고, 이야기하고, 경축하는 존재이다.

- 하비콕스(Harvey cox)

8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한국인은 흥이 넘치고, 신명이 있는 민족

노래와 춤을 즐기고,
놀이를 좋아하는 민족

인생을 즐기고
사는 멋을 아는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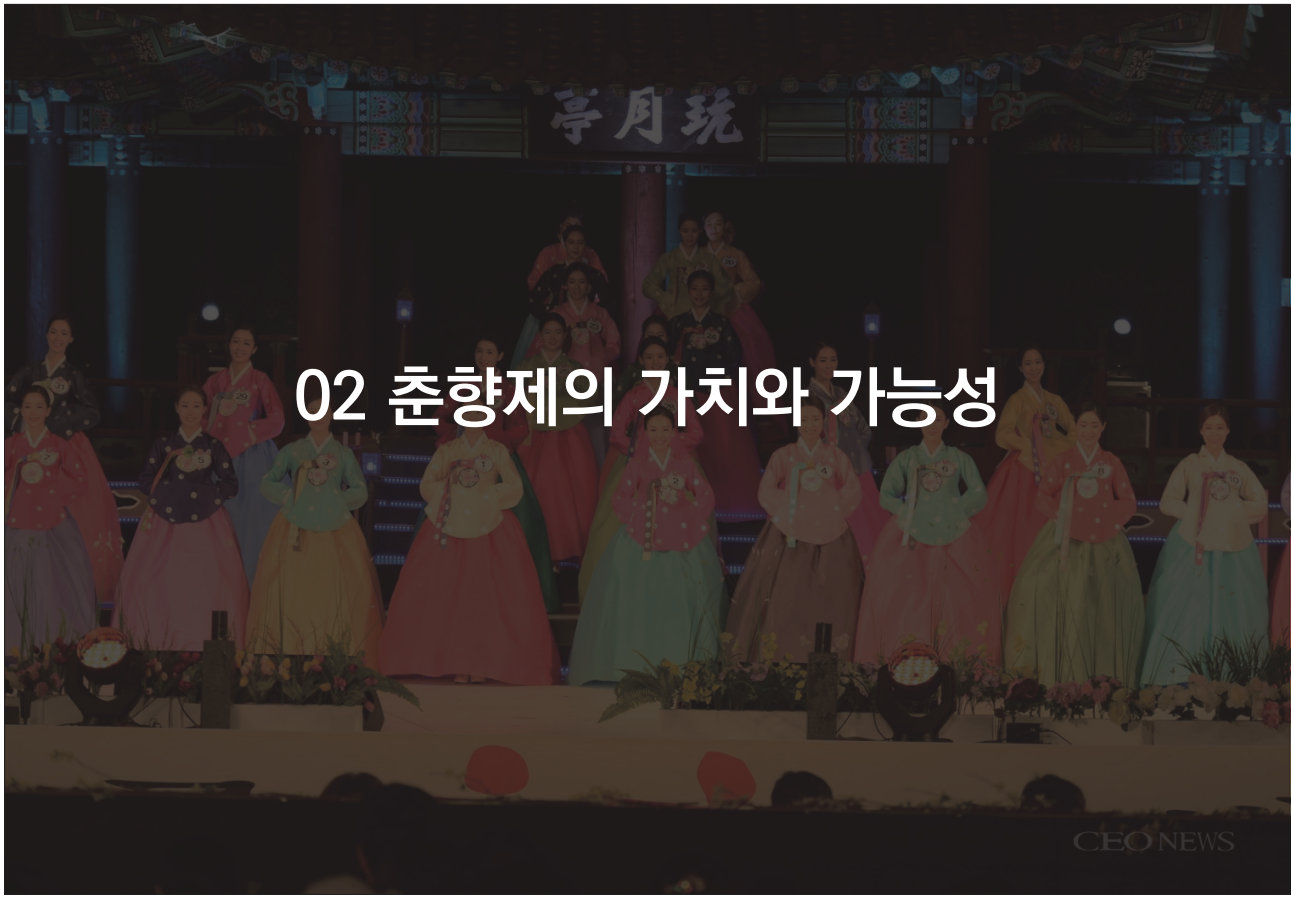
인생의 한(恨)을
노래와 춤(歌舞)과
놀이로 달래는 민족

9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1 한국 축제의 역사

K-전통문화, 한류의 뿌리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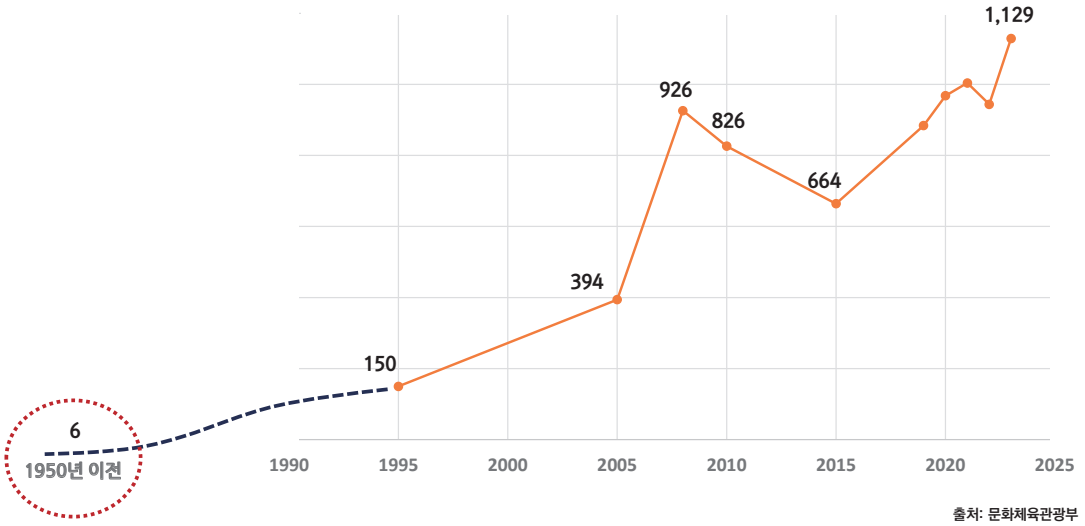
1. 역사성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의 하나

12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1. 역사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충남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조선시대부터 시작 500여년의 역사

198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강원
강릉단오제

기원전 120년경 동예 '무천' 제천행사와 연관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짐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5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전북
남원 춘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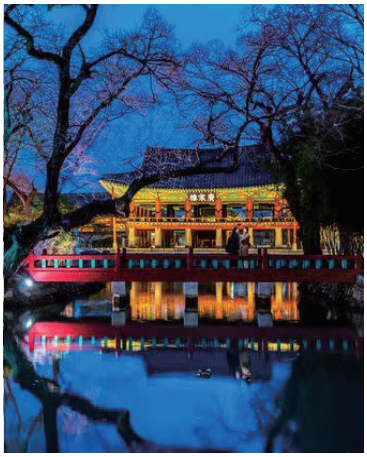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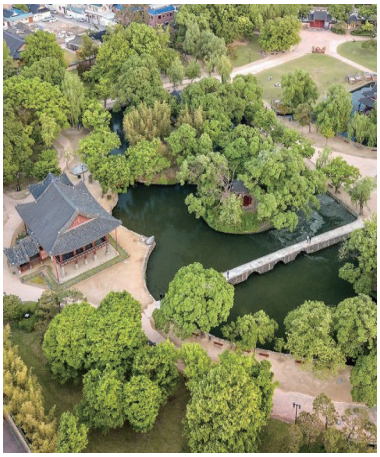
춘향전, 춘향가를 모티브로 탄생
1931년 춘향사(春香祠) 준공으로 춘향제향 시작
전라북도 대표축제,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16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2. 장소성 춘향제는 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 축제, 모방 불가

17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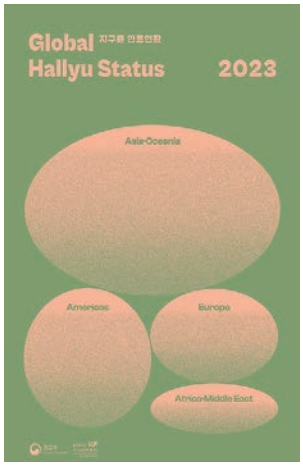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3. 스토리 남녀 사랑 이야기의 보편성, 이야기의 확장성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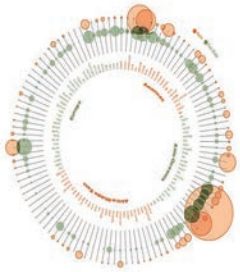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가치와 가능성



Global Hallyu Fan Clubs & Fans

Countries	112
Fan Clubs	1,748
Fans	224,974,073



한류 성공 키워드: 한국적 서사를 토대로 하는 여성보편주의

2023년 한류 데이터는 다민족·다인종 사회인 미국 내 한류 팬덤의 90% 이상이 '미국 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대중문화의 산실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한류 팬덤의 디아스포라적 움직임이 '여성보편주의'에 기반함을 나타낸다.

해외 대중을 위로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한류

2023년 〈뉴욕타임스〉에서 한류와 관련된 기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희망', '사랑', '가족' 등이 상위권에 선정되었다. 이는 한류가 전 세계 대중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고 사랑을 배우며,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품게 하는 문화의 흐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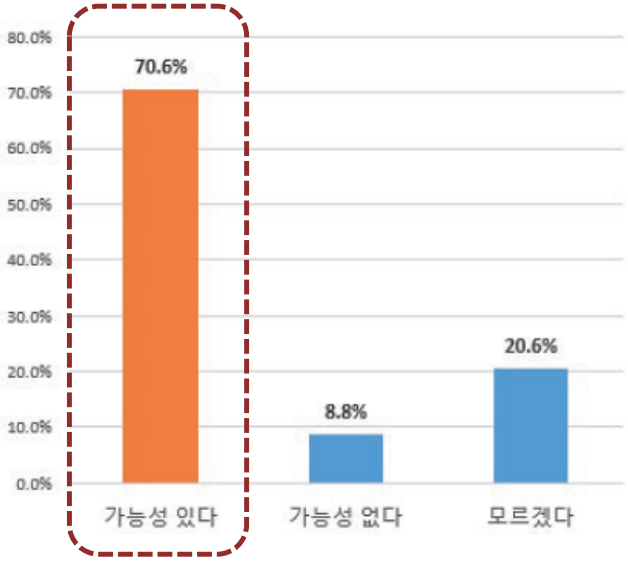
출처: 외교부(2023) 지구촌 한류 현황

19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2 춘향제의 역사와 가능성

4. 지지도 세계적 축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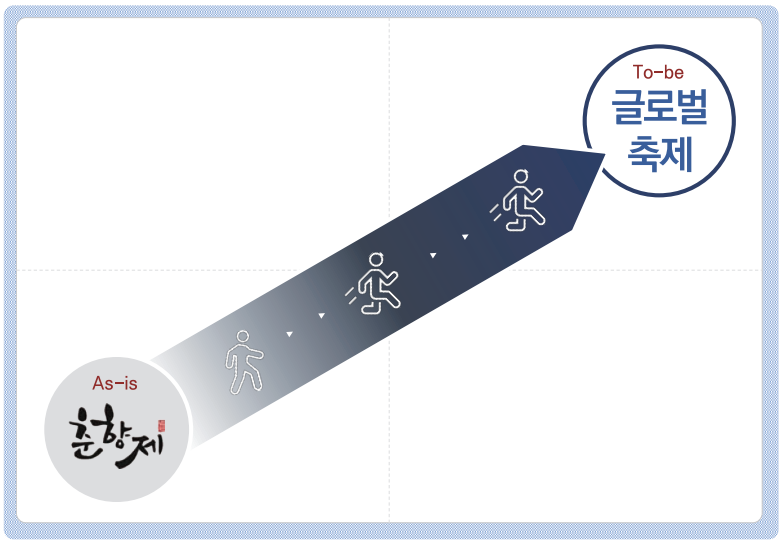
출처: 남원춘향제 2023년 결과보고서

20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춘향제의
현실기반 미래 전략



22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글로벌 축제화 과정

경쟁력1
지역축제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면 특별한 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

차별성

경쟁력2
지역 문화를 넓은 시간과 공간으로 확장하여 문화적 공감과 보편성 확립

보편성

독창성

경쟁력3
독창적인 매력을 갖추고 국내에서 경쟁력 강화

축제성

경쟁력4
축제가 자신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축제는 본질적인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제성

경쟁력5
국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에서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방문 목적지로 널리 확산

출처: 한국관광공사(2023) 글로벌축제 육성 전략

23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글로벌 축제 성공요인

조직의 전문화
조직은 전문인력,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업무, 상설 조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 등을 갖추어야 함

해외 교류 홍보마케팅
해외 프로모션과 마케팅은 글로벌 축제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

재원조달의 다원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적립을 통한 축제 자생력을 강화 중요

킬러콘텐츠와 프로그램
지역의 독창성과 차별화를 갖추고 방문객들이 즐거워하고 선호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TITLE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관광객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며, 축제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축제시스템 구축

출처: 한국관광공사(2023) 글로벌축제 육성 전략

24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글로벌 축제 성공요인

구분	내용
국제적 규모와 참여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객, 예술가, 참가자들이 모이는 축제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 예술가 참가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
문화적 교류의 장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이 만나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제공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자리
세계적인 인지도	국제 커뮤니티 내에서 품질 독특함 및 경험에 대해 강한 명성을 가지고 있음
프로그램 다양성	예술, 음악, 음식, 공예 등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하며 종종 상징적인 이벤트로 인식
미디어 보도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광범위한 국제적 미디어 보도
접근성	다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문화 규범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관광객이 접근성 향상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며, 개최 커뮤니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출처: 한국관광공사(2023) 글로벌축제 육성 전략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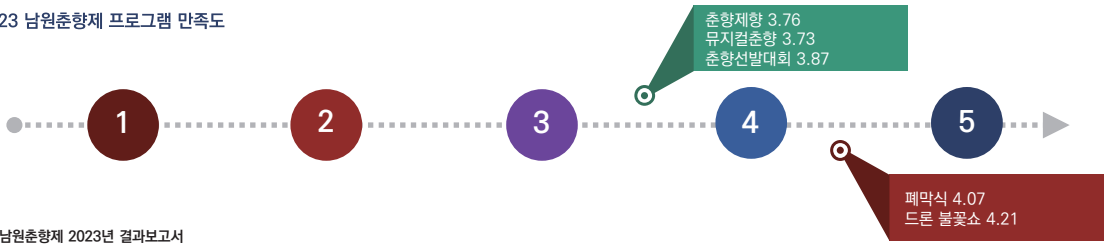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차별성

남원춘향제의 핵심 콘텐츠 매력도 부족

■ 2023 남원춘향제 프로그램 만족도



출처: 남원춘향제 2023년 결과보고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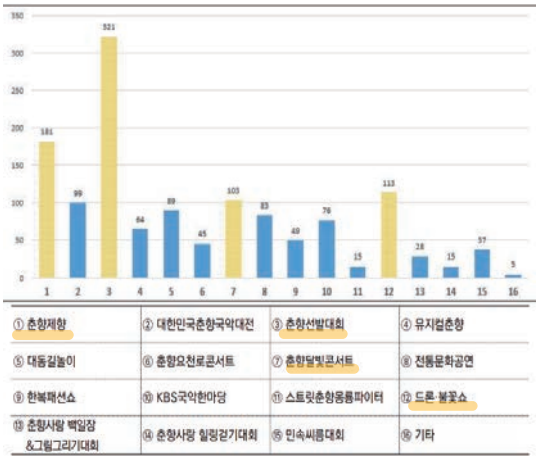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차별성

남원 춘향제만의 차별성 있는 대표 콘텐츠 부각

구분		만족도(5점 척도)
고유행사(2)	춘향제향, 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	3.76
공식행사(2)	개막식 및 춘향선발대회, 폐막식	3.95
공연프로그램(9)	뮤지컬춘향, 춘향요천콘서트, 춘향달빛콘서트, KBS국악한마당, 전통문화공연, 한복패션쇼, 대동길놀이, 스트릿춘향 몽룡파이터, 드론&불꽃쇼	3.82
대회프로그램(4)	춘향사랑 백일장 & 그림그리기대회, 춘향사랑 힐링걷기대회, 민속씨름대회, 전국춘향사랑 서화휘호대전	3.76
전시 및 공간(3)	남원문인시화전, 포토존(LED, 액자) & 미디어파사드 & 오작교조형물 존, 전통문양길 & 색동길 & MBTI길	3.80
상설체험(4)	춘향그네체험, 전통놀이체험, 전통체험(전통소품만들기 & 체험부스), 부대행사(만들기 & 체험부스)	3.88
식음 및 기타(3)	푸드존(Re-Plus 존, One Food 존, 막걸리 & 푸드트럭 존, F&B 푸드존), 야시장, 월매장터	3.61
전체평균		3.79



출처: 남원춘향제 2023년 결과보고서

27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정체성

춘향전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적인 재해석

28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축제성

축제는 재미, 놀라움, 환상으로 가득, 축제 기대감 유발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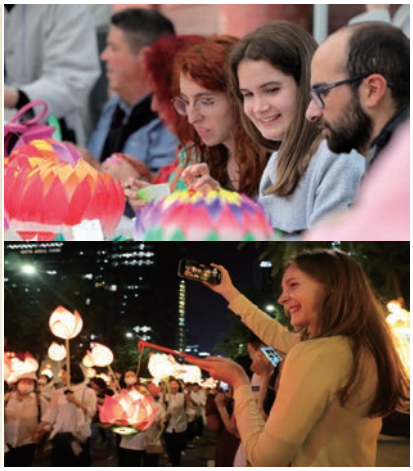
29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국제성

외국인 참가자 유도, 해외 축제와의 활발한 교류 확대
글로벌 콘텐츠 강화



30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전문성

운영조직의 민간화 및 축제 전문가(총감독) 활용
권한과 역할 위임, 축제 전문성 강화

총감독 활용

운영조직의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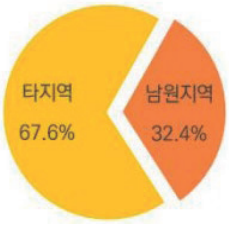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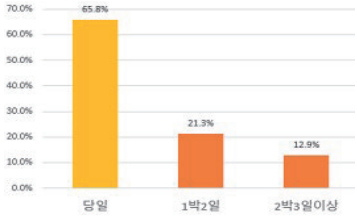
경제성

지역상권 연계, 축제 상품 개발 등 축제의 파급효과 확산
유료 콘텐츠 및 축제수입원 다각화, 경제적 독립성/지속성 확보

구분	지출금액 평균
전체	54,347원
지역주민	33,313원
타 지역	64,407원



방문객 거주지



숙박여부

출처: 남원춘향제 2023년 결과보고서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NWFF)

03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

지속성

평가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로 지속적인 개선사항 반영 및 성장

계획수립 Plan » 실행 Do » 모니터링/평가 Check » 개선점 조치/환류 Action

33

토론

최준호 Junho Choe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前 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 춘천인형극축제 예술감독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rtistic Director of Festival Creative Seongsu & Chuncheon Puppet Theatre Festival

토론문 1)

완전히 다른 훌륭한 두 원고의 발제에 감사드린다.
첫 번 발표를 통해서는 아비뇽페스티벌이 서양 연극적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시키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연극창제작 축제, 최고의 연극시장이 되었는지를 핵심적으로 짚어주셨다. 아울러 남원 춘향제가 세계가 주목하고, 교류하고 싶어하는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셨다.
두 번 째 발표는 교과서적인 연구로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을 요약하였다. 현실기반의 미래 전략 확립, 글로벌 축제화 과정 수립, 글로벌 축제 성공 요인 확보를 기반으로 축제의 차별성, 정체성, 축제성, 국제성, 전문성, 경제성, 지속성 등을 강조하였다. 대단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며, 원론적이기도 하다.

질문. 오늘까지의 춘향제는 발표자의 구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무엇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라고 생각되시는지? 발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설명을 부탁한다.

이제 토론자가 던지는 질문들은 발제자님들과 축제 관계자와 청중들에게 전하는 말로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일로 생각된다.
- ‘전통문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세계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세계인들이 지금 주목하는 전통문화를 누린다는 의미로 우선 이해되는데, 이것이 축제의 전략으로 되는 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통예술’을 말하는가? 이 점이 앞선 발제에서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과 완전히 다른 점임.
- 춘향제의 세계화는 어떤 목적에 따른 것이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세계화가 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 춘향제는 본질적으로 예술축제인가 관광축제인가? 그에 맞는 집약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계발되고 있는가?
- 축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축제를 통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즉, 축제가 해당 분야의 연중 활동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 ‘춘향’관련 예술 작품들은 축제를 통해 어떻게 발전, 성장하였는가? 그것들은 이벤트성으로 사라졌는가 아니면 확산성과 융합성을 담보하며 지속되고 있는가?
- ‘춘향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무 검토는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술감독을 비롯한 축제 사무국은 상설로 움직이며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축제 파트너들의 참여와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는 우선 남원에서의 축제의 융성, 발전과 맞닿아 있기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론

류인평 InPyong Ryu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이사장

Professor Dept of Tourism Management Jeonju University
Chairman of Corporation Regional Tourism Culture Development Council

토론문 2)

남원 춘향제는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축제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이다
고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축제들 중에 춘향제는 그 제의적인 특성을 가미해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축제다
춘향제의 글로벌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춘향의 한국적인 면부터 이해하고 이러한 장점이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춘향은 전통적인 한국 여인의 표상이며 고대부터 현대 까지 변함없은 소재인 사랑을 중심으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 지역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풍자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몽룡의 한시에서 보듯이 문학적인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춘향제는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을 꾀하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전통을 되찾고자 하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춘향전은 단순한 하나의 소설과 판소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지역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축제로 승화하여 대한민국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젠 춘향제는 국내외에서 잘 알려진 축제로서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만 잘 알려진 축제가 이젠 해외와 교류하고 글로벌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한국적인 모습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전 춘향제는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공연제 형식으로 변모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지역적인 공연의 한계와 춘향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으로 인해 보다 확장성에 한계에 부딪혀 왔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화된 춘향제를 위해 보다 외연적인 확장성과 더불어 내면적인 확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춘향이라는 단순한 인물 중심의 콘텐츠 보다 사랑이라는 만국 공통 언어의 축제 콘텐츠가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춘향을 한국의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글로벌화하기 위한 캐릭터 확장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춘향선발대회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많은 춘향 유사 캐릭터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춘향제의 확장이 필요하다. 춘향이가 만나는 인물이 이몽룡 뿐 아니라 로미엣, 제인에어등 세계의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랑이 존재하는 춘

향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춘향제가 공연 문화예술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이젠 세계의 각국 공연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 확장되어야 한다. 정해진 공연장서 열리는 공식 공연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유로이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린지 공연도 확대가 되어야 하며 일반 시민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도 확장과 축제기간에 남원시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적 확장 또한 필요하다. 또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현대적 공연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축제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도시가 되도록 축제를 활용해야 한다.

발표자의 내용을 감명깊게 잘 읽어봤으며 아비뇽페스티벌과 춘향제를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남원과 아비뇽과의 도시 정체성, 규모 그리고 문화적 유산이 유사하다고 해주셨고 이에 공감하는 바다.
질문. 아비뇽 페스터벌도 초창기에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날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으며 남원 춘향제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024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

세션3

인구소멸 관점에서의 지역 축제의 역할

해외발제
스가와라 켄스케
(주)오마츠리재팬 최고 프로젝트 책임자

국내발제 서병로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교수,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좌장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토론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 팀장

토론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등 겸임교수

해외발제

스가와라 켄스케 Sugawara Kensuke

(주)오마츠리재팬 최고 프로젝트 책임자
Chief Project Officer Omatsuri Japan Corporation

국내발제

서병로 ByungRo Seo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교수,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Professor of Global MICE-related major at Konkuk University
Director of Korea Regional Culture Contents Research Institute

좌장

오훈성 Hoonseong Oh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Ph.D In Tourism

토론

김동영 DongYoung Kim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 팀장
Head of the population and youth team at the Jeonbuk State Institute

토론

이선철 Sun-chul Lee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등 겸임교수
President of PotatoBlossomStudio
Adjunct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at Yonsei University

해외발제

스가와라 켄스케 Sugawara Kensuke

(주)오마츠리재팬 최고 프로젝트 책임자

Chief Project Officer Omatsuri Japan Corporation

스가와라 켄스케
(Sugawara Kensuke)

[소개 및 경력]

- 오마츠리 재팬(주)은 일본 전역에서 축제 지원 제공
- 최고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다양한 페스티벌의 브랜딩과 제작에 참여
- 도호쿠 미야기현 출생. 도호쿠 대학 졸업.
- 2019년 오마츠리 재팬(주) 입사. 2024년부터 이사진으로 활동.

[오마츠리 재팬 기업 소개 영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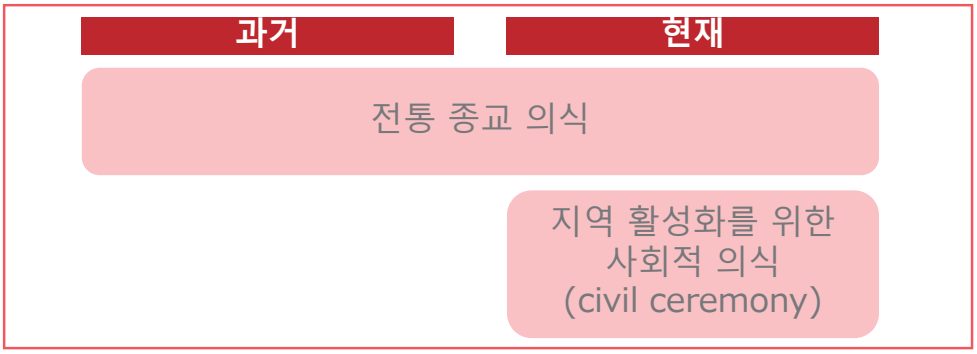
[발표 주제]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역 문제 및 축제의 역할

4

우선... 일본 축제란 무엇인가?

[정의]
마츠리(일본 축제)는 일본의 다양한 종교 의식 중 하나로,
특히 신도(Shintō)의 신사 축제와 불교의 사찰 축제가 대표적이다.
마츠리는 신사, 신 또는 신성한 힘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도 일본 축제의 개념에 포함된다.



5

일본 내 축제 수

6

365일/어디서나

[일본 축제의 힘]

-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
- 일본 문화의 상징
-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 지역 경제 활성화

아오모리 네부타(Aomori Nebuta)의 경제 효과 **238억 엔**
일본 축제의 시장 **1.4조 엔**

9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일본 축제의 가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원하는 경험에 대한 조사

웹 설문조사 참조 (일본 관광청, 2018)

[일본 축제의 장애물]

현재 행사 주최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 인력 부족
- 틀에 박힌 콘텐츠
- 예산 부족
- 홍보 부족

지역 문화 상실
/지역 커뮤니티 및 경제 쇠퇴

[회사 소개]

회원
회원 25명 + 서포터 400명

설립
2015년 11월 설립

공공 사업
- 컨설팅
- 프로모션
- 이벤트 지원

기업 사업
- 이벤트 프로모션
- 광고 판매

소비자 사업
- 축제 티켓 판매

온라인 미디어 사업
전국의 축제 및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 전파

13

[오마츠리가 지원하는 축제]

아오모리 네부타 축제

칸다 축제

아와 오도리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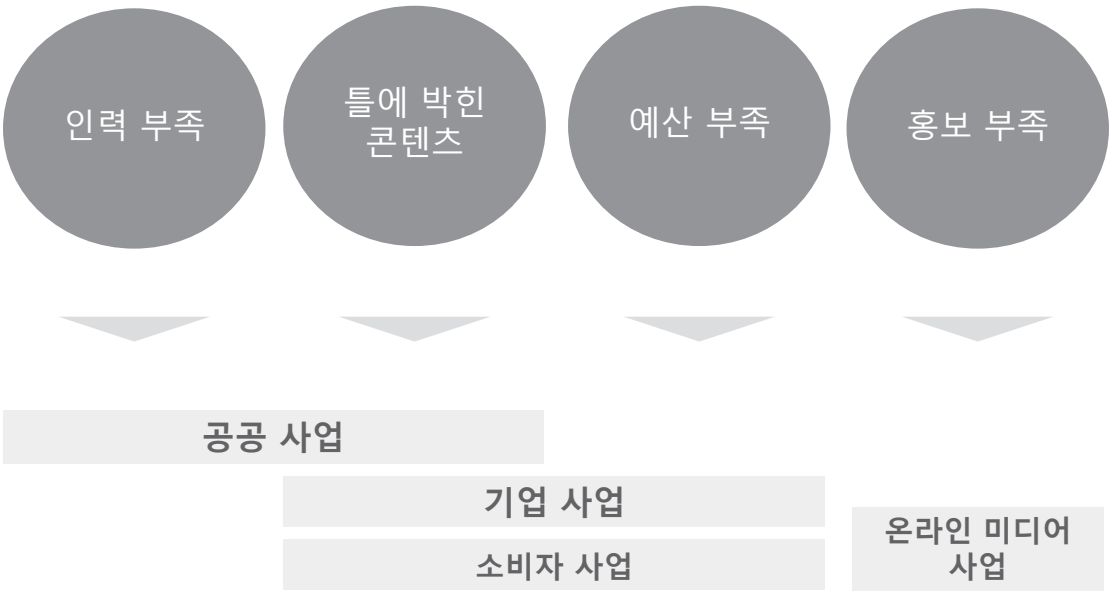
전국 불꽃놀이

교토 기온 축제

이와미 카구라 댄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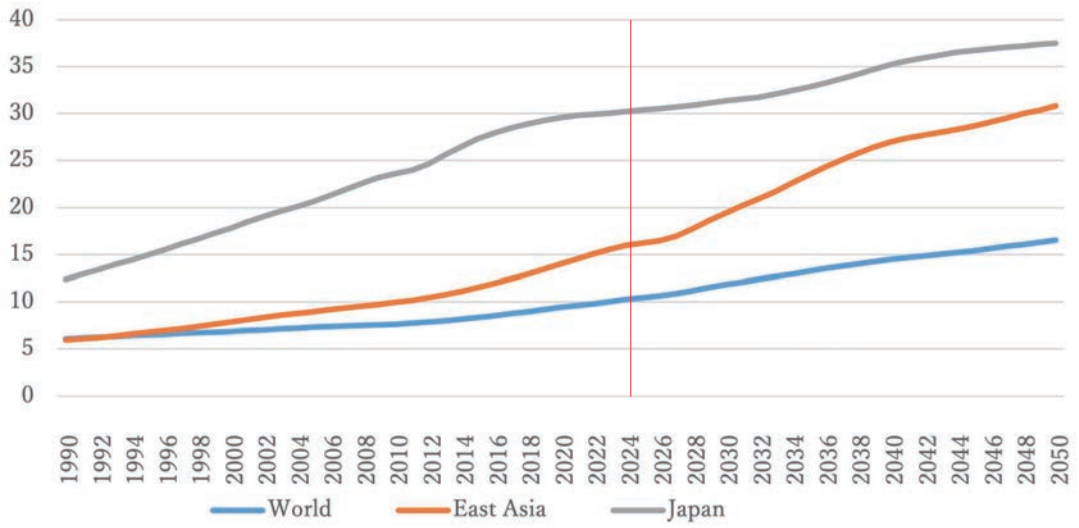
[장애물 및 해결책]



15

[저출산 및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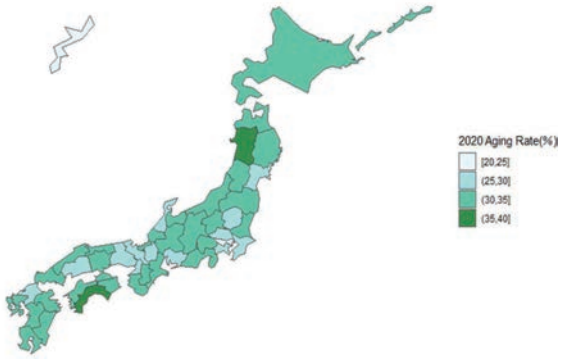
세계, 동아시아,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황
(65세 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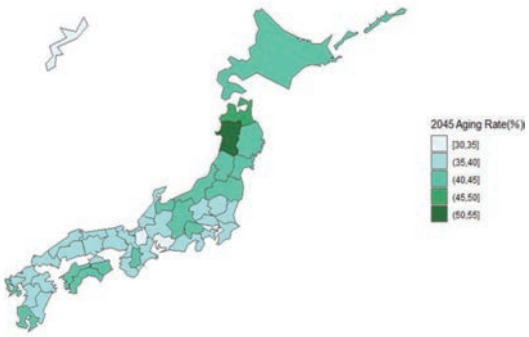
16

[저출산 및 고령화]

2020년 현(prefecture)별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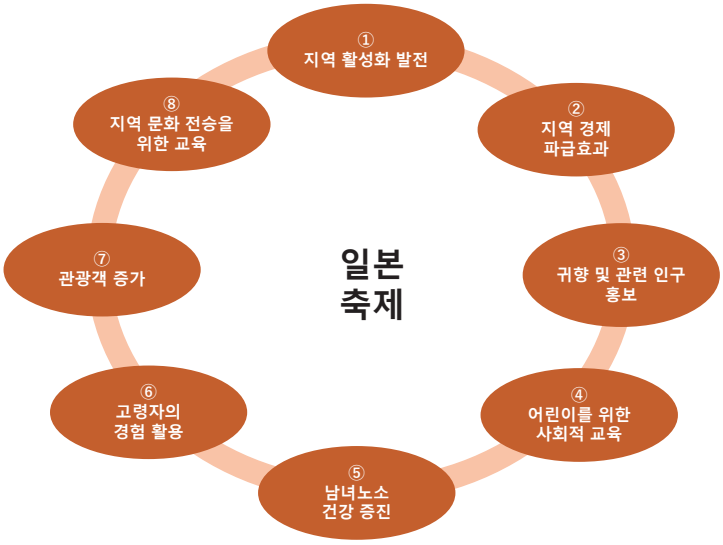


2045년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17

【 일본 축제의 역할】



1. 페스티벌 이해관계자가 지역사회 파트너 지원
2.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
3. **축제를 위한 유턴/귀성 여행**
4.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5. **체험 및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6. 노년층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7. 축제를 통한 여행, 숙박, 외식 수요 확대
8. 지역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기회

18

[사례 1: 축제를 위한 이주]

고치(Kochi)현의 요사코이 축제(Yosakoi Festival)는

-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축제다.
- "고치시에서 살고 싶다", "고치시에서 요사코이를 추고 싶다"며 고치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사코이 이주 프로젝트'는

- 고치시에 살고 싶어하는 전국의 요사코이 애호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한 **커뮤니티로 형성되는 것을 장려**하는 이니셔티브다.
- 이러한 운동을 **"요사코이 이주"**라고 한다.

19

[사례 2: 세대 간 격차 해소]

일본 서부 단지리(Danjiri) 축제의 지역사회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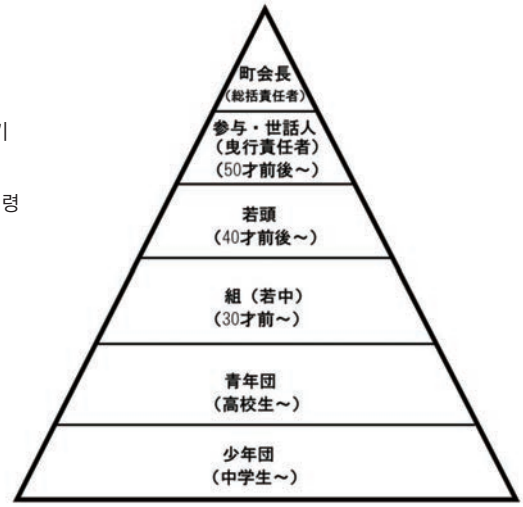
고령자

노년기 / 중년기
(50세 이상)

노년기 이전 연령
(40세 이상)

청년
(30세 이상)

청소년
(청소년 이상)



20

[사례 3: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증진]

요사코이 축제

'나루코'라는 악기를 들고 팔을 흔드는 간단한 동작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본(Bon) 춤

쉬운 동작과 리듬에 맞춰져 있어 처음 춤을 추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음

21

[요 약]

- 축제는 **지역 문화와 전통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 안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기도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지역에 통합되는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 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형성 및 소통 설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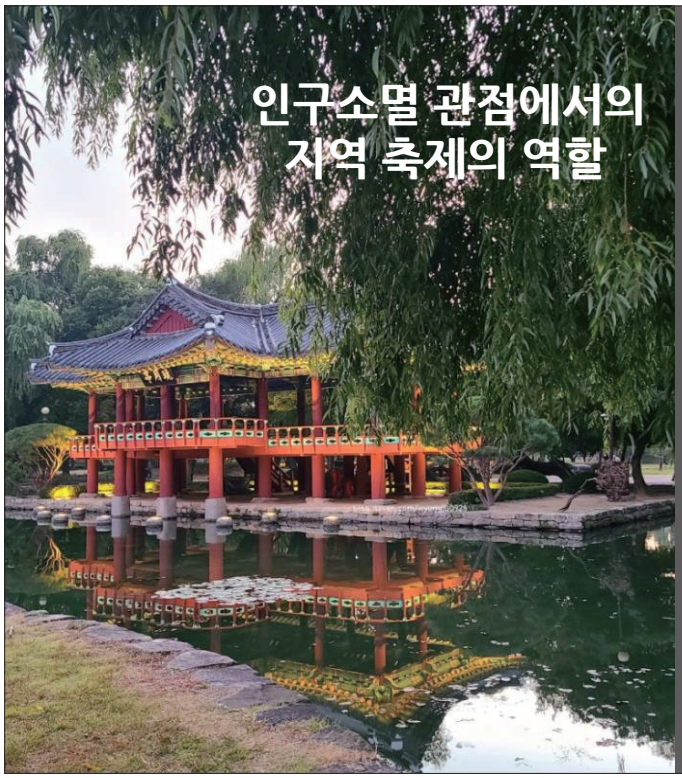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オマツリ ジャパン

국내발제

서병로 ByungRo Seo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교수,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Professor of Global MICE-related major at Konkuk University
Director of Korea Regional Culture Contents Research Institute



The Role of Local Festivals in terms of Population Extinctio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Seo Byung-Ro

건국대학교 서병로교수(Professor Seo Byung-ro, Konkuk University)

주요 경력사항

Global MICE, Medical Tourism, Wellness Tourism, Culture Contents, Regional Studies, Corporate Management Evaluation Diagnosis

現) 건국대학교 글로벌MICE연계전공 교수
現)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現) (재)강원도 관광재단 비상임 이사
現) (재)횡성문화관광재단 비상임 이사
現) 코레일유통 경영자문이사
現)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종합평가위원)
現)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 평가위원)
現) 조달청 대형 국제회의 심사위원
現)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 / 제주도 웰니스관광 심사위원
現)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자문위원
現)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심의위원 / 웰니스관광 부위원장 및 자문위원
現) 경기도 정책공모 심사위원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자문위원 /축제평가 위원 / / 노포 심사위원
現)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시 유니크베뉴 선정심사위원
現) 성남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 위원 /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추진위원회위원
現) 송파구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 / 강동구 의료관광협의회 자문위원
現)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인증 심사위원 /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심의위원
前) 2022년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조직위원장
포상) 한국MICE협회 공로상, (재)강원도 관광재단 감사장, 고양특례시 감사장 등
저서) MICE산업론,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산업론, 의료관광마케팅, 웰니스산업론 외 다수
SSCI)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Promotion Policies in Medical Tourism Industry in South Korea: A 10-Year Study (2009-2018) etc.

[Contents]

1 인구 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2 청년인구 유입전략

3 지역엑스포 사례연구

4 춘향제 중장기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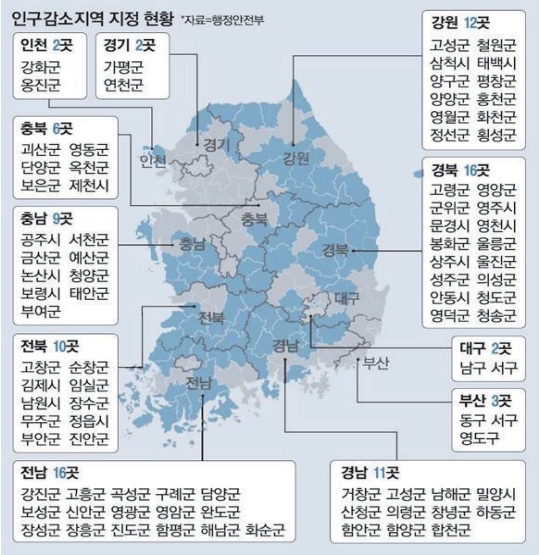
0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 지역인구감소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1)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2021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별로 전남과 경북은 각각 16개군이 선정 최다를 기록했다. 강원은 12곳, 경남은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이 지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인구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2) 지역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필요

저출산 현상 심화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사회구조적 문제 심화 개인주의적 생활방식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급속한 고령화 진행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로의 진입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
인구유출과 지역소멸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 지방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 더욱 심화
대응방안 수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 광역지자체(시군별/읍면동)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3) 고령인구증가

고령인구 부양부담 증가

지속적인 고령인구 1인당 부양 인구 증가로 2065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1명 부양

미래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노인의 사회적 부양 책임 문제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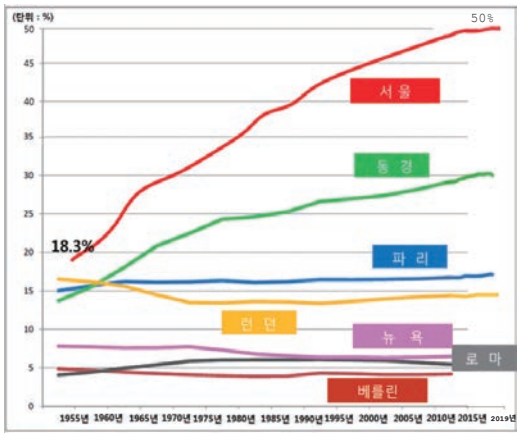
고령인구 1인당 부양 인구 (전국) 1960년 18.9명 → 2019년 4.7명 → 2065년 1.1명

(전국)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4) 수도권 집중화 현상

세계 각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률



주) 서울은 서울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시 1도의 합계
동경은 동경수도권(동경도, 치바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1도 3현의 합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분야에서
서울 중심의 질서로 재편

일본 창생본부(2014) : 동경 1극 집중 현상 억제
→ 지역자원 활용 지역산업 창출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

수도권 집중도	GDP	일자리
한국	51.8%	49.7%
일본	33.1%	30.8%
프랑스	31.2%	22.8%
영국	23.6%	17.0%
이탈리아	11.2%	10.6%
독일	4.4%	4.5%
미국	0.7%	0.5%

※자료 출처: 박광온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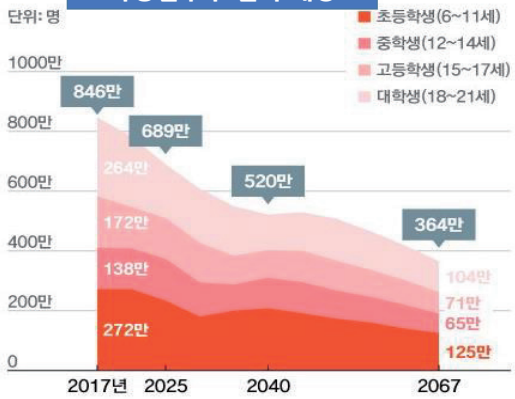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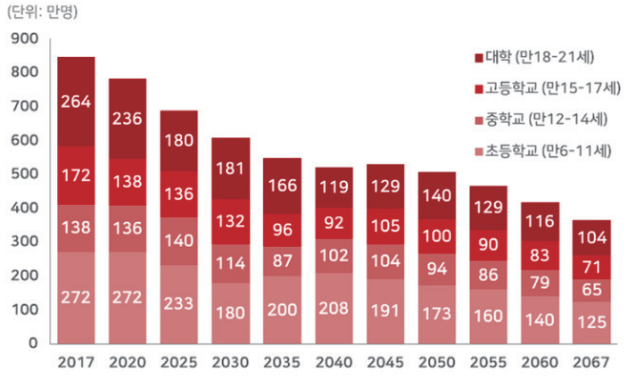
(5)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초 • 중 • 고등 학생수 : 2020년 546만 명=> 2067년 261만 명

대학생 수 : 2020년 236만 명 => 2067년 104만 명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자료 : 감사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보고분석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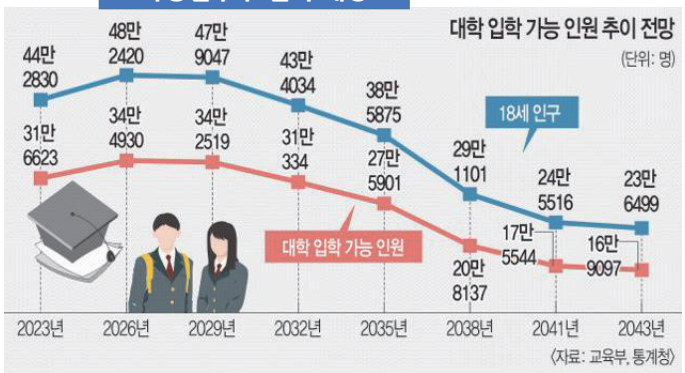
초•중• 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
최근 20년간 초• 중등 학령인구가 약 3분의 1 줄어듬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6)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입가능인구 2023년 31만 → 2039년 19만… 공포에 떠는 대학들,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학령인구수 변화 예상



향후 10년 내 문닫을 대학 규모 예상

응 답	인 원	비 율
없다	0	0
20개 이하	16	14.41
21~30개	22	19.82
31~40개	30	27.03
41~50개	10	9.01
50~60개	16	14.41
60개 이상	17	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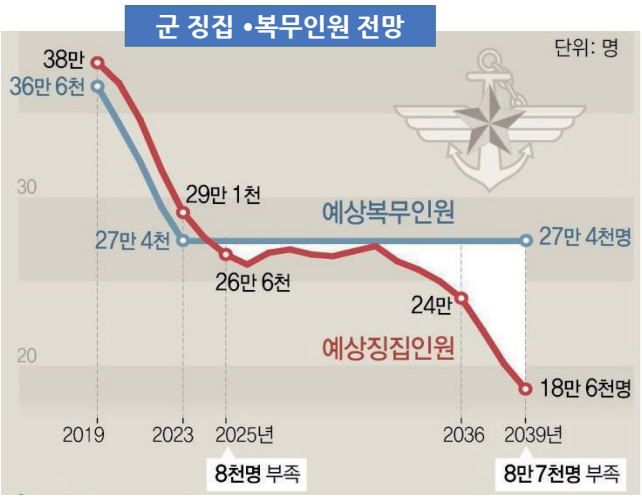
자료 : 교육기자단, 댜교협 총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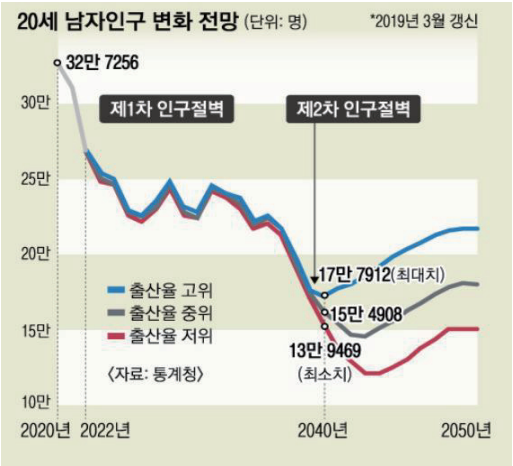
2023년 31만6623명에 불과. 2022년 33만9543명보다 2만2920명 줄어듬. 하지만 이제 시작
2034년까지 30만 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2035년에 27만5901명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전망.
이후 낙폭은 더 커져 불과 4년 뒤인 2039년에는 19만4371명으로 주저앉은 뒤 16만~17만 명대로 굳어질 전망.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7)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주요병력 자원 대상인 19 -21세 남성인구 감소 : 2020년 97만 명 => 2030년 70만 명 => 2030년 46만 명





2025년 20세 男 23만… 5년 새 29%↓가 줄어 들어 복무기간 단축 '위기' 앞당겨 징병자원이 줄어 사회문제 대두 예상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8) 지역의 인구 유출 심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유출 또한 심화되고 있는 추세

노동력 부족
=> 경제성장 저하

부양인구 증가
=>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재정수지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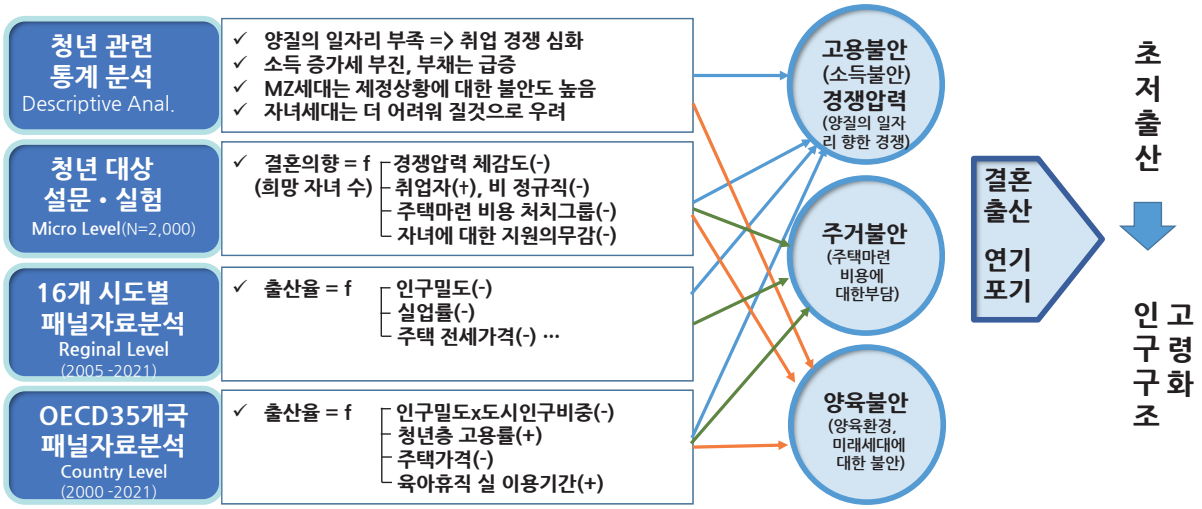
학령인구감소
=> 지역대학 위기

수도권 집중
=> 지역간 격차 심화

인구규모 유지(증가)와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

1. 인구소멸과 지역 인구변화

(9) 한국 초저출산 원인 분석



출처 : 황인도 외 "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국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년 11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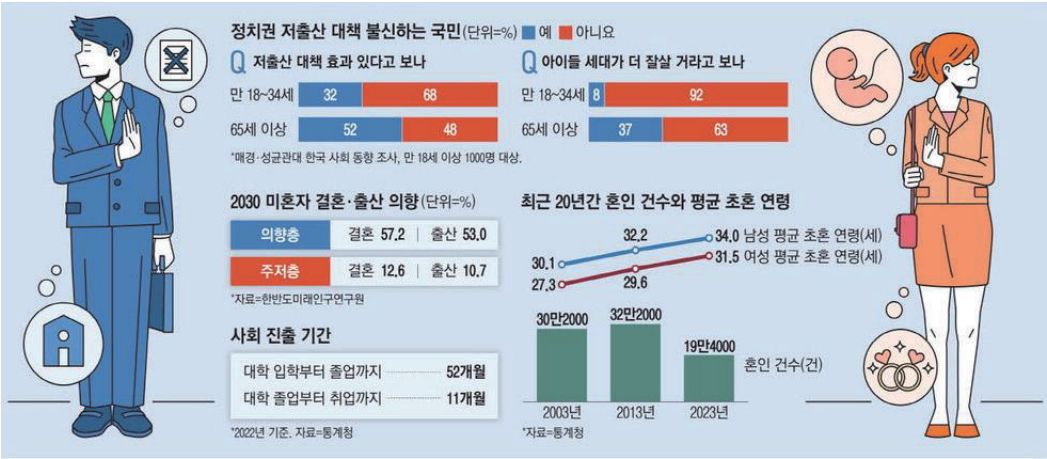
청년인구 유입전략

- 2023년 혼인 건수
-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사례 예시

1. 청년인구 유입전략

(1) 지역인구 소멸 예방을 위해 청년세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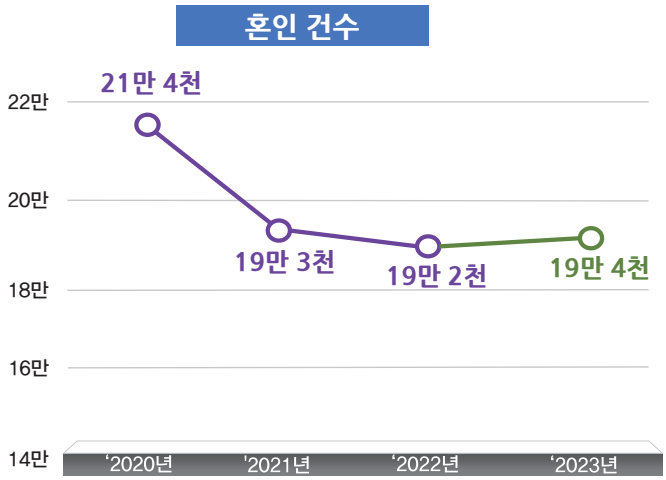
결혼·출산 미루는 100만 '주저세대'를 정책 타깃 삼아야 하며 결혼 • 출산 걸림돌 주거, 경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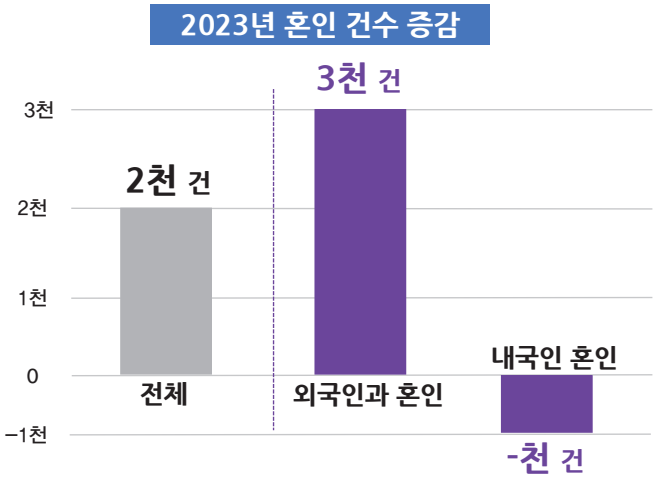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20·30대 청년이 최대 100만 명, 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정책 역량을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에게 집중,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대책이 필요, 취직 도와줄 AI비서 활용, 스타트업·中企채용 연결 필요

1. 청년인구 유입전략

(2) 2023년 혼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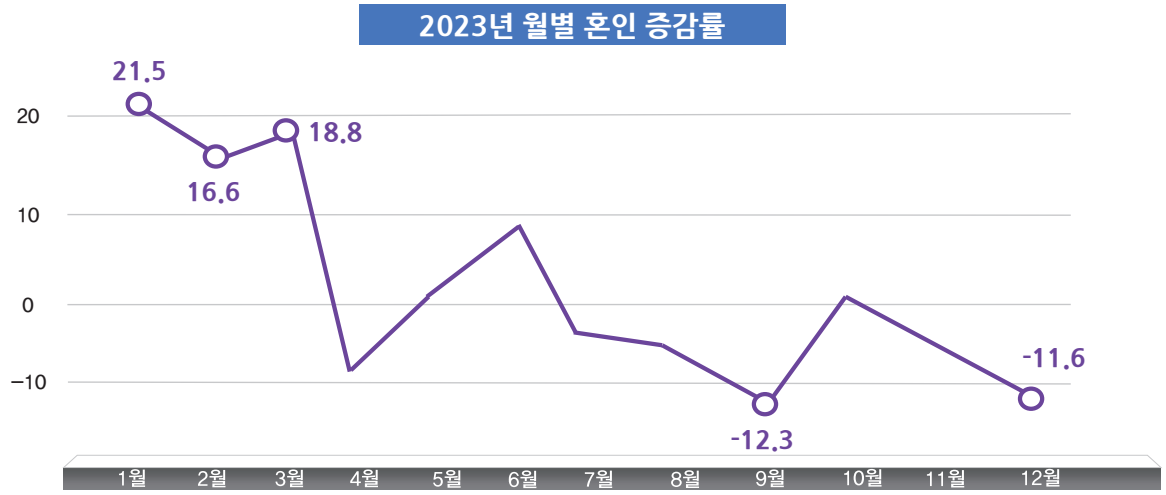


23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3년 3년 연속 20만 건을 밑돌고 있으며 22년에 비해서는 2천 건 상승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이 원인

1. 청년인구 유입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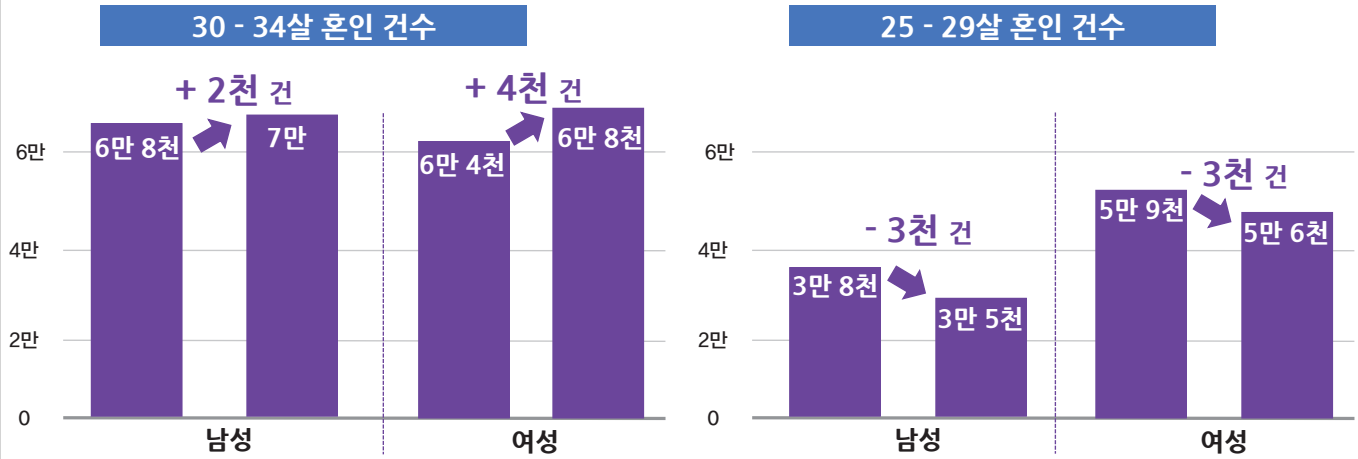
(2) 2023년 혼인 건수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23년 3월까지 혼인 건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지만, 증가폭을 점차 줄여 12월엔 오히려 11% 넘게 감소

1. 청년인구 유입전략

(2) 2023년 혼인 건수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부 정책 등 증감요인이 혼재해 있다.
30대 초반의 혼인이 전년보다 늘어난 점에 주목 / 20대 후반 남녀의 결혼은 3천 건 씩 줄어 듬
이 추세가 지속되면 혼인 건수는 20만 건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1. 청년인구 유입전략

(2) 2023년 혼인 건수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여성	
2013년	2023년	2013년	2023년
32.2살	34살	29.6살	31.5살
+ 1.8살		+ 1.9살	

첫 결혼을 하는 나이도 더 많아졌으며, 23년 초혼을 한 남성의 연령은 처음으로 서른네 살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서른 한 살을 넘어 매년 연령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10년 전과 전과 비교하면 두 살 정도 늦어진 것으로 조사됨

1. 청년인구 유입전략

(3) 지역인구감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실패의 원인

1. 정책방향 설정의 오류 :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의 잘못됨
   수도권 집중 획지적 완화 없이는 저출산 정책의 한계
2. "잔혹한 교육경쟁" 극복과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에 실패
   정책 융합 없는 단편적, 파편화된 정책의 한계
3.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
   노동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의 한계
4. 저출산 정책 거버넌스의 취약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
   점진적 접근의 한계 : 강력한 정부 정책 드라이브 한계

: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일자리, 주택공급, 노동경제 유연성, 돌봄경제 정책지원

1. 청년인구 유입전략

(4) 해외인구정책 사례

청년 인구활력 UP
독일의 청년정책

"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하고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에 중점을 둔 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불구(08) 사회,경제적 활력 유지

대학무상교육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사회적 분담금 별도)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비EU학생 등록금 납부
- 독일은 국공립 대학 비율 높음

대학생 주거 생활비 지원(바피크)

월 최대 861 유로 지원

수도권 일극화 대응
일본의 지방분권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마을.사람, 일자리 상생 종합전략 추진

- ✓ 지속가능한 국가,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 확립
-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 설치(2014년)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우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최대 300만엔 지원

지방중소기업 이직 지원

지방 중소기업 이직 시 최대 100만엔 지원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1)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고흥군)

일자리 및 산업진흥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은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 받은 청년에게 농업시설물 설치 및 점포 리모델링 등 가업 승계 비용을 1인 당 2000만원까지 지원

기업승계 청년지원 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

- ✓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 ✓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 ✓ 청년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3개 사업

청년층 유치를 통한 인구구조 선순환 체계 구축

지속사업 발굴 지원

- ✓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 상승효과
- ✓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 지원으로 청년 인구 유입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2)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의성군)

이웃사촌마을 사업

경북 의성에 젊은 층이 살도록 유도하는 '이웃사촌 마을'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시골에 활력 (안계면 일원) 일자리와 주거단지, 복지체계를 갖춘 청년 마을을 조성해 농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활기찬 마을로 성장

✓ 4년째 접어들면서 안계면 일원에는 스마트팜 청년 농부 59명, 창업한 청년 CEO 48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유입된 청년 160여 명(전입 102명)이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됨.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3)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홍성군)

청년창업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5명의 20대 청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여행사를 창업
대학을 다니며 본인들이 느낀 홍성의 매력을 외부에 알리고자 2016년 7월 ㈜행복한 여행나눔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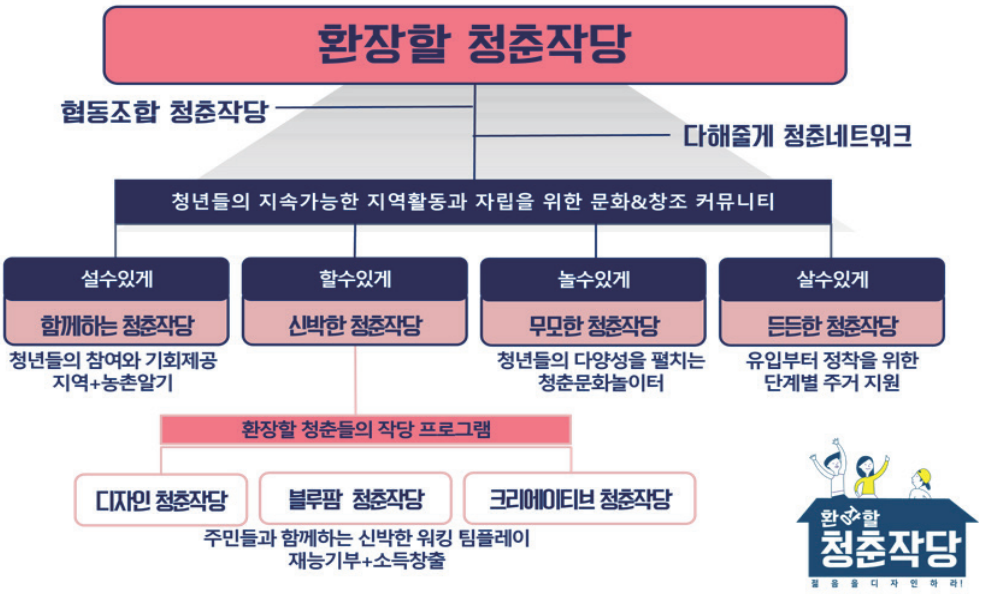
기업명(주) 행복한 나눔여행
대표이사 : 김영준
전화번호 : 032) 653-9850
회사주소 : 충남 홍성군 남장로79-15, 202호
사업내용 : 여행사, 경영 컨설팅업, 광고대행, 이벤트업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appytourshare.com/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했다. 이후 홍성역에서 약10분 거리에 위치한 100년이 넘은 한옥기와집을 수리해 '암행어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
- 주민여행사와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업 아이템을 통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지역 내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
- 대표투어상품 : 귀농귀촌캠프, 명사와 함께 하는 해설투어, 문화재 활용 체험 투어, 지역 먹거리와 함께 하는 삼시세끼 등으로 구성
- 2020년 관광두레 사업 우수 DMO 성과평가 1위 명예를 차지
- 민·관·산·학·연을 '관광통'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해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머물러'라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육성함.

인프라구축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4)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곡성군)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4)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곡성군)

곡성에 귀농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협동조합 청춘작당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4)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곡성군)

환장할 청춘작당

2.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례

(5) 한달 살기 프로그램 성공적인 정책 사례(강진군)

Note(주목) : 변화의 사이 속, 주목 받는 New 여행 형태

- 엔데믹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여행형태가 주목
- 강진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 라는 의미
-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 일상과 색다름을 병행할 여행형태에 대한 관심
- 2020년 4분기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언급된 '한 달 살기', '호텔재택', 등과 같은 키워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0% 증가

03
지역 엑스포 사례연구

- **지역엑스포 의미**
- 지역엑스포 사례
- 춘향제 축제 발전방안

1. 남원시 축제 현황

(1) 남원시 축제 현황

구분	주최/주관	개최시기	장소	예산(백만원)	내 용
춘향제	춘향제전 위원회	매년 5월 중	광한루원 등 시내일원	1,809	춘향이의 고장 남원에서 춘향의 절개와 정절을 부덕의 상징으로 숭상하고 이를 승모하기 위한 축제이며, 매년 석가탄신일 전후에 5일간 개최됨
흥부제	흥부제전 위원회	매년 음력 9월 9일	사랑의 광장	433. (시비 433)	춘향제와 함께 봄에 개최, 매년 음력 9월 9일 시민의 날과 함께 남원시내 일원에서 2일간 전야제를 시작으로 흥부전을 새롭게 창극화한 흥부전 창극공연과 길놀이, 흥부가족달리기 등이 진행됨
황산대첩제	운봉애향회, 운봉읍	격년 음력 8월 15일	황산대첩비지,지리산허브밸리	35	황산대첩제는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의 황산대첩을 기리는 행사로 장사씨름대회, 윷놀이, 백일장대회, 노래자랑 등이 진행됨
고로쇠 약수제	산내면, 산내면번영회, 지리산뱀사골 고로쇠축제 위원회	매년 3월 초	지리산뱀사골 반선관광주차장	15 (지방비 15)	지리산뱀사골 고로쇠약수제를 널리 알리고자 축제화하여 매년 3월 초 산신제와 함게등산대회, 고로쇠약수마시기, 고로쇠이고달리기 등을 진행

1. 남원시 현황

(1) 남원시 축제현황

구 분	주최/주관	개최시기	장 소	예산(백만원)	내 용
바래봉 철쭉제	운봉애향회	매년 5월 초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일원	15 (시비15)	바래봉을 중심으로 세걸산까지 3~4km에 이르는 철쭉군락에서 개최되며, 철쭉제례, 기념식, 철쭉길 등반대회와 그림그리기, 노래자랑 등이 진행됨
뱀사골 단풍제	산내면발전협의회	매년 10월 말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제 3주차장 주변	10 (지방비 10)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붉게 물든 오색단풍을 볼 수 있으며, 단풍제례인 산신제와 등산대회, 산신령께 소원문쓰기, 판소리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됨
삼동굿놀이	삼동굿놀이 보존위원회	매년 음력 7월 15일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양촌마을 주민들이 수확을 앞두고 당산으로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이곳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로, 1982년 전국 민속놀이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함

1. 남원시 현황

남원시 SWOT분석(Namwon City SWOT Analysis)

남원시 문화 · 관광(SWOT분석)
Namwon City Culture/Tourism (SWOT Analysis)

강점(Strength)
-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 보유
-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문화관광시설 보유
-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로 문화진흥 잠재력 우수
- 남원의 전통문화축제 94년의 역사문화전통 축제

단점 (Weakness)
-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
- 낮은 문화예산 비율
- 지역문화를 이끌고 갈 운영조직 부재
- 지역 내 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 불균등
-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부재
- 생활문화활동 활성화를 기반시설 부족

기회 (Opportunities)
- 정부의 문화관광 관련 정책 추진
- 전라남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 남원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욕구 증대
- 자치분권으로 문화자체에 대한 의식 함양 증가
- 생활체육 참여 증가

S-O (강점기회) 강화전략
- 글로벌 생태문화도시 조성
  - 지역 문화예술 거점 조성
  -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
  - 문화자치기반구축 및 육성
  - 전통문화진흥 · 축제 콘텐츠 강화

W-O (단점기회) 보완전략
- 지속가능한 문화 · 체육 · 관광기반 조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 공공체육시설 확충
  - 관광수용태세 개선(야간관광 조성)

위험(Threats)
- 경기침체로 문화 · 관광활동 위축
- 문화 ·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행태 변화 추세
- 지자체 간 국비 사업 유치 경쟁 심화

S-T (기회위험) 극복전략
- 문화 · 체육 · 관광 생태계 디지털 혁신
  -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을 통한 인재양성
  - 전통문화관광시설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W-T (약점위험) 방어전략
- 여가 접근성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확대(지역주민 대학개설)
  - 중장기 전략을 통해 남원 춘향엑스포로 도약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콘텐츠 다각화
  - 문화의 융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원 만들기

2. 엑스포 분류((Types of EXPO)

(1) 세계엑스포 특성분석(World Expo Characteristic Analysis)

BIE 공인 세계엑스포가 아닌,
전국구 규모의 로컬엑스포 기준으로 선정

B.I.E 공인 : 세계엑스포

- 등록 박람회
  - 기간 : 6주 ~ 6개월
    빈도 : 5년에 1회
    면적 : 제한없음
  - 2005 일본 아이치
    2010 중국 상하이
    2015 이태리 밀라노
    2020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2025 일본 오사카
- 인정 박람회
  - 기간 : 3주 ~ 3개월
    등록박람회 사이 1회
    25ha미만(75천 평)
  - 2008 스페인 사라고사
    2012 대한민국 여수
    201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202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컬 엑스포 : 국내 엑스포

- 정부승인
  - 기간/간격 : 제한없음
    국비지원 + 지방비
    (시비+도(군)비
  - 2010 제천 한방엑스포
    2020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2 아.태 마스터즈대회
    2030 부산월드엑스포
- 정부비승인
  - 기간/간격 : 제한없음
    지방비(시비+도(군)비)
  - 2008 군산 자동차 엑스포
    2023 여수유엔기후
    변화협약총회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

2. 엑스포 분류((Types of EXPO)

(1) 세계엑스포 특성분석(World Expo Characteristic Analysis)

BIE 공인 세계엑스포가 아닌,
전국구 규모의 로컬엑스포 기준으로 선정

구분	BIE 공인 엑스포	로컬 엑스포
박람회 주제	등록 박람회 : 광범위한 테마 / 전문적 테마 인정 박람회 : 명확한 주제 ex. 여수 EXPO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 지향적 활동	제한 없음
국가관	BIE 회원국/비회원국 : 참여가능	시, 도, 주정부기관 참여가능
전시관 건설장비	등록 박람회 : 참가국 자비부담 인정 박람회 : 주최국 부담	제한은 없으나 참가경비 보조가 상례
초청자	주최국 정부 (정부대표 임명)	주최도시, 도 또는 기관
초청형식	정부외교 공한	단체장 명의 서한

2. 엑스포 분류((Types of EXPO)

(2) 세계엑스포와 지역엑스포(World Expo and Regional Expo)

구분	세계엑스포	지역엑스포
개최 목적	인류 상호간 이해와 복리 증진	산업 진흥, 국제 교류, 주민 의식 향상
성격	인류, 미래, 비전 제시 및 국가 홍보 위주의 비상업적 행사	지역산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승인	국제박람회기구(BIE)	기획재정부
참가 단위	국가, 국제기구(국가 간 행사)	지자체 및 해외 자치단체(단체 간 행사)
전시 대상	주제를 반영한 참가국의 기술과 문화 등	지역과 주제에 근거한 기술과 문화 등
관람객	일반 대중	일반 대중
개최 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6주 ~ 3개월 이내
경제적 효과	장기적	중기적
개최 주기	등록엑스포 : 5년마다 인정엑스포 : 등록박람회 사이 1회	단발, 2년, 3년 등

자료:해양수산부(2005), 『국제박람회 관련 규정집』 참고

2. 엑스포 분류((Types of EXPO)

(3) 공인엑스포와 비공인엑스포(Certified Expos and Non-Certified Expos)

구분	공인엑스포	비공인엑스포
주제	등록엑스포 : 제한 없음 인정엑스포 : 특정분야로 한정	제한 없음
국가관	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 참여가능	회원국 참여 (국가관 명칭 사용불가)
개최 주기	등록엑스포 : 5년 인정엑스포 : 등록박람회 사이 1회	제한 없음
개최 기간	등록엑스포 : 6개월 인정엑스포 : 3개월	제한 없음
전시관 건설	등록엑스포 : 참가국 자비 부담 인정엑스포 : 주최국 부담	제한 없으나 참가 경비 보조가 상례임
초청자	주최국 정부 (정부대표 임명)	주최 도시, 주 또는 기관
초청 형식	주최국 정부 (공식외교 서한)	주최 단체 및 주최기관 (단체장 명의 서한)

자료:해양수산부(2005), 『국제박람회 관련 규정집』 참고

3. 엑스포 사례 (EXPO Case)

(1) 대한민국 지역엑스포(Korea Regional Expo)

지역의 특정산업이나 문화 등의 특정 소재를 테마로 활용하는 지역특화엑스포

3. 엑스포 사례 (EXPO Case)

(1) 대한민국 지역엑스포(Korea Regional Expo)

개최 주요 지방 엑스포의 경제유발 효과 및 고용창출효과

(금액 : 억 원)

연도	엑스포 명	개최기간	투입 예산	경제적 효과	고용유발 효과
2011	금산 인삼 엑스포	32일	138	4,667	10,800명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60일	200	2,366	4,160명
	대장경 천년문화 세계 축전	45일	306	8,564	15,783명
2012	고성 세계 공룡 엑스포	73일	116	2,238	1,280명
	고양 국제 꽃 박람회	18일	51	2,113	3,152명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24일	260	1,092	1,720명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6개월	350	1조 1,060	7,578명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	17일	163	2,111	2,334명
	산청 세계 전통 의약 엑스포	45일	434	3,270	3,010명
	대장경 세계문화 축전	45일	144	4,087	3,186명
소계 평균		-	215	4,158	5,300명

자료: 각 지방박람회조직위원회(2012 ~ 2017), 『결과보고서』을 참조하여 요약

3. 엑스포 사례 (EXPO Case)

(1) 대한민국 지역엑스포(Korea Regional Expo)

연도	엑스포 명	시기	기간
2015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8월 21일 ~ 10월 18일	59일간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9월 17일 ~ 10월 31일	45일간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9월 18일 ~ 10월 11일	24일간
	나주 국제 농업 박람회	10월 15일 ~ 11월 1일	18일간
2016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4월 1일 ~ 6월 12일	73일간
	세계 친환경 상품 디자인 박람회	5월 5일 ~ 5월 29일	25일간
	예천 세계 곤충 바이오 엑스포	7월 30일 ~ 8월 15일	17일간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	9월 29일 ~ 10월 31일	33일간
2017년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4월 14일 ~ 5월 7일	24일간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9월 22일 ~ 10월 10일	19일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9월 22일 ~ 10월 23일	32일간
2018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10월 23일 ~ 10월 27일	5일간
	산청 약초 축제	9월 29일 ~ 10월 9일	11일간
2021년	함양 세계 산삼 엑스포	9월 25일 ~ 10월 25일 예정	31일간
	계룡 세계군문화 축전	9월 18일 ~ 10월 4일 예정	17일간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1)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 일반현황

✓ 주제 : 숨쉬는 그릇, 미래를 담다
✓ 기간 : 2010. 9. 30~ 2010. 10. 24 (25일간)
✓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
✓ 성격 : 정부승인 국제박람회
✓ 총 관람객 : 80만 명
✓ 사업비 : 99억 원(국비 35억 원, 지방비 64억 원) 190억 원을 직접 지출

✓ 평가

✓ 옹기라는 독특한 소재로 한국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엑스포로 평가
✓ 옹기마을을 행사장으로 활용, 국내외를 망라한 옹기작품 전시, 외국작가 퍼포먼스 참여 등 다양한 부대행사 및 전시 컨텐츠 마련
✓ 2010년 울산시 최고의 성과로 선정
✓ 옹기를 지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홍보하고 옹기의 미래가치 발견
✓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변모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 녹색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도시브랜드를 강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2)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 일반현황

✓주제 : 한방의 재발견 -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기간 : 2010. 9. 16~2010. 10. 16 (31일간)

✓장소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성격 : 정부승인 국제박람회

- 교육전시, 산업전시, 국제전시 / -체험 이벤트 행사
- 컨퍼런스 : 한방 및 대체의학 관련 국제학술회의, 기타 세미나 및 포럼

✓ 총 관람객 : 135만 여명

✓ 사업비 : 약 35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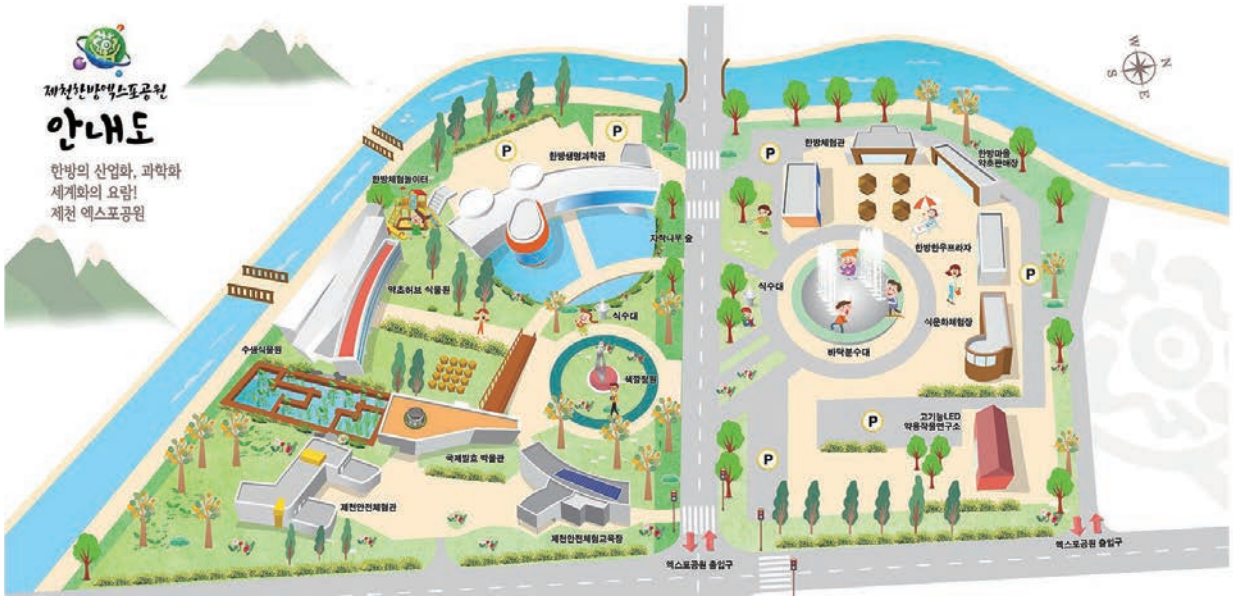
✓ 컨텐츠 기획의도

✓제천시는 인구 13.6만 명의 소도시로서 기초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한약재 생산·유통의 중심지이며 2010년 제1회 행사의 개최지라는 점에서 당 행사의 개최지로 기획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전통 한방에 첨단 바이오산업을 접목시킨 새로운 유망 산업을 발굴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과 행사 개최의 공익성을 통해 지역킬러 컨텐츠로 승부.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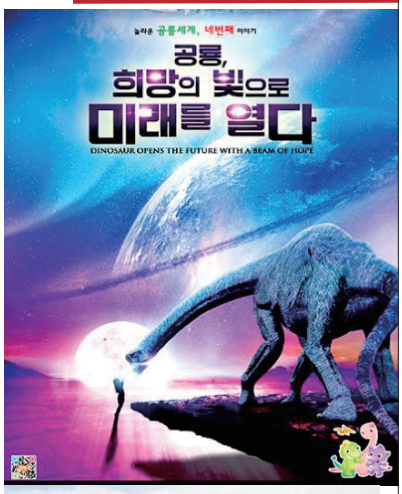
(2)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3)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구분	내용
행사명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주제	하늘이 내린 빗물,공룡을 깨우다!
장소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
행사기간	2012년 3월 30일~6월 10일(73일간)
주최/주관	경상남도 고성군/(재)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관람객	178만 명
개최수익	117억 원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4)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구 분	내 용
행사명	2021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2020 Wild Ginseng Anti-aging Expo Hamyang, KOREA)
주제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
장소	경상남도 함양군 상림공원(제1행사장), 대봉산휴양밸리(제2행사장) 일원
행사기간	2021. 9. 25.(금) ~ 10. 25.(일) <31일간>
주최	경상남도 · 함양군 *주무부처 : 산림청
관람객	약 129만 명
참가국	13개국, 관람객 129만 명(외국인 6.6만 명)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4)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5) 산청세계의약엑스포

구 분	내 용
행사명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주제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
장소	산청군 동의보감촌, 한방의료클러스터 일원
행사기간	2023년 9월 15일 ~ 10월 19일(35일간)
주최/주관	경상남도·산청군/(재)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관람객	약 120만 명 사업비 : 150억 원(국비 45, 도비 30, 군비 30, 수익사업 45억 원)
참가국	30개국, 관람객 120만 명(외국인 6만 명)

비즈니스 엑스포	경계 없는 엑스포	이슈 창출 엑스포	스마트 엑스포	지속가능한 엑스포
비즈니스 강화로 전통의약·항노화산업 육성성과 창출	경남·산청을 중심으로 국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확산	엑스포 이슈 창출로 120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실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운영 전략 도입 (스마트엑스포앱)	엑스포시설·콘텐츠로 항노화 웰니스 관광 수요 창출

4. 지역 엑스포 사례 분석 (Regional EXPO Cas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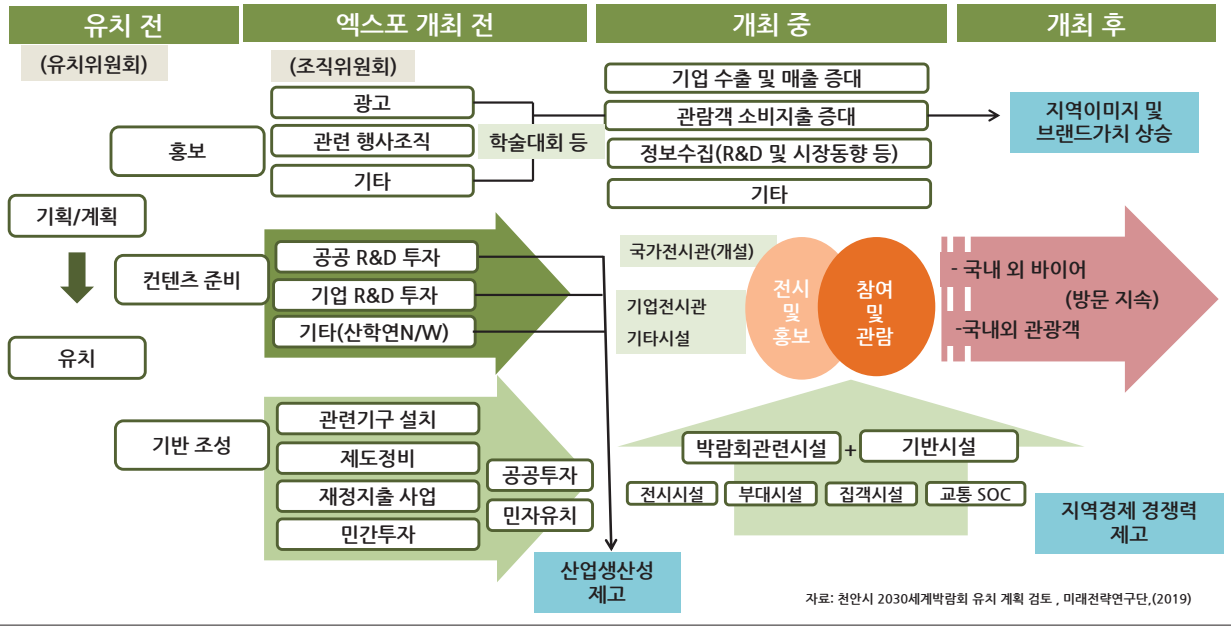
(5) 산청세계의약엑스포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본계획의 국가 승인을 통한

1. 산청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 개최 성과 계승
2. 현정부 2023 한의학 세계화 정책 실현 국가 경쟁력 제고
3. 경남 항노화 연계 지역 산업 육성 전략(한방항노화) 실효성 강화
4.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속 발전 및 한방항노화웰니스 관광지 육성

5. 지역 엑스포 개최효과(Effects of holding Local Expo)

(1) 지역 엑스포 개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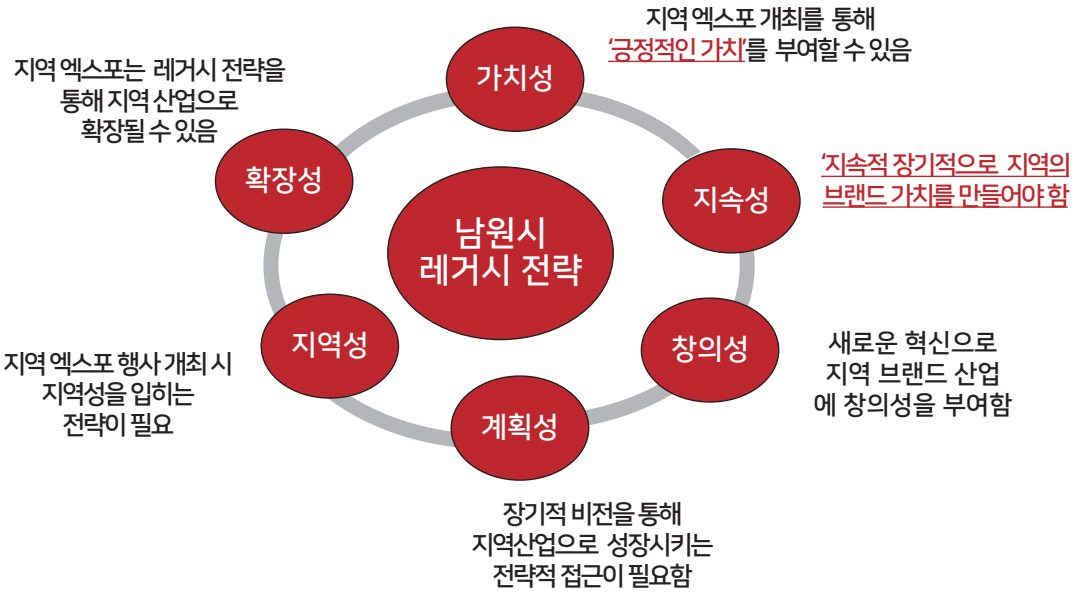
자료: 천안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검토 , 미래전략연구단,(2019)

5. 지역 엑스포 개최효과(Effects of holding Local Expo)

(2) 지역 엑스포 개최효과

6. 레거시 전략(Legacy Strategy)

(1) 지역 엑스포 개최를 통한 레거시 전략



6. 레거시 전략(Legacy Strategy)

(1) 지역 엑스포 개최를 통한 레거시 전략

지역 엑스포 개최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얻어지는 긍정적 가치효과 : 지역 유산화 전략

구성차원	주제산업 레거시	지역적 레거시	경제적 레거시	사회문화적 레거시	환경적 레거시
	전통문화산업이 주제가 되어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치	개최 지역에서 전통문화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치	축제나 전통공연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	개최 지역에서 축제나 전통공연 개최로 인해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개최 지역에서 축제나 전통공연 개최로 인해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환경적 가치
구성항목	산업협력증대 • 산업협력노력증가 • 산학협력증대 • 클러스터화 • 국제협력기구증가 정보기술공유증가 • 신규정보확산 • 신규아젠다제시 • 생산정보공유 인적역량강화 • 관련일자리창출 • 산업종사자네트워크확장 • 참가자전문성향상 • 관련신규창업 • 관련교육과정발전 비즈니스이벤트창출 • 관련비즈니스 이벤트창출	지역산업발전 • 지역신성장산업 발굴/육성 • 지역산업 연관컨벤션발전 • 지역주민주제산업 인식개선 지역인프라개선 • 지역인프라개선 • 지역수용태세개선 • 관광수용태세개선 지역인지도제고 • 지역인지도제고 • 지역홍보마케팅 기회증대 지역주민인식개선 • 지역주민삶의수준향상 • 지역주민국제화의식수준향상 • 지역주민참여증대 • 지역주민자부심향상	일자리창출 • 취업유발효과 • 직접고용창출 • 고용유발효과 경제성장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소득유발효과 • 국가소득증대 • 수입유발효과 • 간접세유발효과 무역및투자증진 • 무역증진 • 투자유치 방문자경제활성화 • 방문자소비증대 • 방문자유입증대	정부서비스개선 • 정부정책개선 • 정부서비스개선 생활수준향상 • 삶의질향상 의식수준향상 • 시민의식수준향상 • 국제화의식수준향상 • 시민사회활동참여증대 문화활동증대 • 문화교류증대 • 문화행사증대	인프라개선 • 시설인프라개선 • 정보인프라개선 • 교통인프라개선 • 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개선 환경보호활성화 • 환경보호활동노력증가 • 환경보호정책활성화 • 탄소중립 • 그린에너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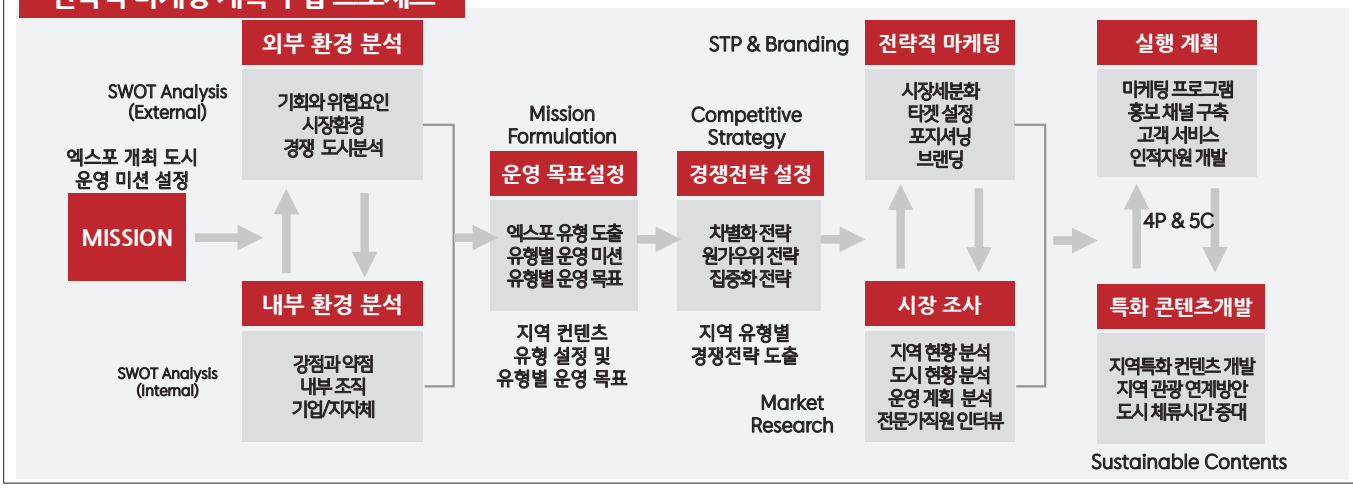
참고자료 : 비즈니스MICE개최 유산 형성구조(김미성박사 논문 참조)

6. 레거시 전략(Legacy Strategy)

(2) 지역 엑스포 개최 도시 및 사례 조사

성공적인 엑스포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션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주제, 컨텐츠를 통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산업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명확한 전략 방향 설정과 전략적 마케팅(시장 세분화, 타겟 설정, 포지셔닝, 도시브랜딩)전략을 수립해야 함.

전략적 마케팅 계획 수립 프로세스



04
춘향제 중장기 발전방안
• 지방시대의 도래
•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1. 지방시대의 도래
'지방시대'의 주역
지역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시대

1. 지방시대의 도래

글로벌 로컬브랜드를 이끄는 힘 : 남원시 가치(Value) 재발견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1) 남원 춘향제를 통한 산업 개발 배경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을 고도화 활성화 전략 마련
(허브재배농가, 허브가공업체, 허브관련업체, 허브축제, 허브토피아관 등)

타지역 허브산업과의 차별화요구, 허브관광객의 확장필요, 허브산업의 핵심콘텐츠 필요

웰니스산업 + 글로벌 웰니스콘텐츠 "香" + 문화관광

6차 산업으로의 허브산업에 웰니스산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하여 미래산업으로 6차산업관광의 모델 제시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2) 남원 춘향제를 통한 개발 컨셉

미래산업으로의 香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등 보이지 않는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香산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발달된 산업으로 바로 삶의 질을 향상 •香과 관련된 산업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다양한 직업군과 연구기술개발이 필요
웰니스산업으로의 香	• 香을 이용한 건강과 웰니스치유 콘텐츠의 필요 • 기존 개발된 아로마테라피외에 의,식, 주에도 향기와 연계된 웰니스콘텐츠 개발로 香산업을 남원시 웰니스 대표산업으로 확장
6차산업으로서의 香	• 허브밸리 조성 6차산업과 연계한 웰니스관광으로의 가능성이 큼 •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이 보존된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향 • 한국을 대표하는 香의 필요 • 춘향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의 모색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3) 남원 춘향제를 통한 개발 키워드

사랑의 도시 남원
春 香

+

지리산의 고원마을
雲 峰

100년을 준비한 미래 남원의 봄(春), 향(香)기 나는 산업이 시작된다

春 香 濟

향기가 구름이 되고 기억이 추억이 되고 사람이 자연이 되는 곳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4) 남원 춘향제를 통한 개발전략

산업전략
천연향의 R&D
천연향의 산업화
→ 국립천연향연구소
香 아카데미 스쿨
소상공인 양성

문화전략
도시문화재정립
香문화의 집적
→ 香박물관
그라스시와 도시제휴
도시 비전 선포

관광전략
香치유관광
香레저관광
→ 香공원
헬스케어센터
치유의 숲 조성

지리산 천연향 클러스터 조성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5) 남원 춘향제를 통한 개발전략

단순특화산업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산업정책을 제도화

香산업진흥 특별조례 제정

- 전략산업의 범위 종류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역할
- 종합적인 산업지원체계구축
  - R&D지원방안
  - 경영능력향상지원방안
  - 특별금융지원방안
  - 마케팅지원방안
  - 글로벌마케팅지원방안

香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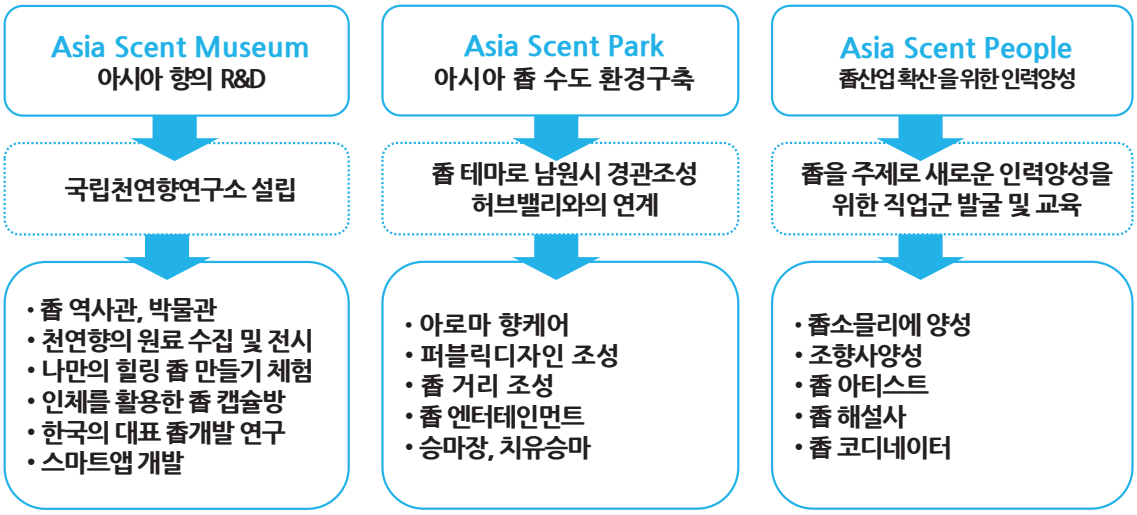
-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 시장중심의 뚜렷한 지향점이 있는 계획
- 폐쇄적인 지역자원의 한계 극복
- 당당한 국가산업자원으로의 계획
  - 시장규모 예측 등 계획의 정밀화
  - 고용창출 등 성과목표의 명확화
  - 뚜렷한 중앙정부 지원명분 제시
- 주민생활, 문화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종합적인 계획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6) 남원 춘향제를 통한 개발목표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7) 지리산 천연향 클러스터 프로그램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8) 지리산 천연향 클러스터 기대효과

한국 천연향의 집적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천연향연구소와
세계 향의 도시 그라스와의 도시제휴를 통한 아시아 좁산업의 선점도시

한국의 대표적인 좁 개발로 한국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좁 관련자들의 일자리창출 및 홍보, 작품 판매 등으로 한국 좁산업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인구소멸 사례로 퍼블리시티 조성

주민연계를 통한 한국의 천연향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확보와
젊은 층 들의 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확대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와 춘향의 현대적 해석과 산업화로
새로운 남원시 도시비전 선포

2. 전통축제를 통한 산업발굴 모색

(9) 지리산 천연향 클러스터 프로세스

국제세미나개최 : 좁 산업의 미래 , 대한민국의 좁, 좁의 수도 남원

언론홍보 : 좁 수도 남원시를 위한 의지와 비전 보도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선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행정안전부 - 지역소멸 예산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 6차산업 및 클러스터 산업 지원
문화관광체육부 - 국고 유치(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주민연계를 통한 한국의 천연향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확보와
젊은 층 들의 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확대

남원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와 춘향의 현대적 해석과 산업화로
새로운 남원의 도시비전 선포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GROWTH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김동영 DongYoung Kim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 팀장

Head of the population and youth team at the Jeonbuk State Institute

토론문 1)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은 인구증가에서 인구관리 그리고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라는 두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고전적인 인구정책으로 출산정책과 사회적 인구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인구관리는 인구감소에 따른 적응과 인구의 균형적 분포를 통한 적극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로의 정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지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2021년 -57,118명, 2022년 -123,753명, 2023년(11월 기준) -107,246명으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유치경쟁은 국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경쟁과열에 의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등록상의 정주인구 유입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전북자치도 시군별 생활인구(종합)

(단위: 명)

구분	생활인구 (D=A+B+C)	주민등록인구 (A)	외국인 (B)	체류인구 (C)	통근통학	관광
전주시	4,019,794	642,727	11,114	3,365,953	24,088	3,341,865
군산시	2,198,677	259,980	9,595	1,929,102	12,449	1,916,653
익산시	2,166,323	270,036	6,553	1,889,734	20,450	1,869,284
정읍시	909,824	103,620	3,387	802,817	6,368	796,449
남원시	**760,571**	**76,781**	**1,375**	**682,415**	**3,346**	**679,069**
김제시	982,661	81,430	2,846	898,385	13,125	885,260
완주군	1,729,951	97,827	4,404	1,627,720	25,611	1,602,109
진안군	308,330	24,465	501	283,364	2,895	280,469
무주군	769,843	23,251	348	746,244	1,390	744,854
장수군	172,915	20,983	463	151,469	1,335	150,134
임실군	580,675	25,956	438	554,281	3,796	550,485
순창군	311,778	26,764	453	284,561	2,297	282,264
고창군	628,221	51,750	1,737	574,734	3,203	571,531
부안군	757,495	49,187	1,120	707,188	3,477	703,711
합계	16,297,058	1,754,757	44,334	14,497,967	123,830	14,374,137

자료: 전북연구원, 2024
주1) 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주2) 외국인: 법무부(2023),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월보(12월기준).
주3) 통근통학인구: 행정안전부(2023), 한국의 도시통계.
주4) 관광인구: 한국관광공사(2023). 한국관광데이터랩(12월방문기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1,754,757명이지만 생활인구는 16,297,058명으로 10배정도 되는 것을 알 수있다. 남원시는 관광체류인구가 679,069명으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다음으로 많다. 남원시의 생활인구 정책은 관광을 중심으로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생활인구 정책에서 축제나 이벤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는 젊고 혁신적인 인력의 유입이다. 이는 남원시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인재에 대한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은 지역가치의 산업화와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축제를 통해 유입되는 많은 관람객을 통한 관광체류인구의 유입이다. 관광체류인구의 유입에서 가장 큰 변수는 체류시간이다. 단기체류인구보다는 중장기 체류인구가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인구소멸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역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문화의 인구적 가치에 대해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문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질문 1. 레거시전략을 통해 남원 축제는 어떻게 인구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축제를 통한 남원시의 가치발굴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 외에 축제 그 자체를 통한 인구감소전략은 없는지 궁금하다.

질문 2. 일본의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축제가 인구감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축제가 가지는 커뮤니티 유지와 사회적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축제의 주체는 줄어들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질문 3. 요사코이 이주 프로젝트(Yosakoi Migration Project)가 “고치시에서 요사코이를 추고싶다”거나 “고치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궁금하다. 축제나 지역의 문화가치를 매개로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고치시의 전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한다.

토론

이선철 Sun-chul Lee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등 겸임교수

President of PotatoBlossomStudio
Adjunct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at Yonsei University

토론문 2)

1. 발제의 의의
- 인구소멸 대응 방안으로서의 축제활용 가능성 제기
- 지역축제와 엑스포와의 차별점을 통한 산업화 유도
- 개별 사례를 통한 청년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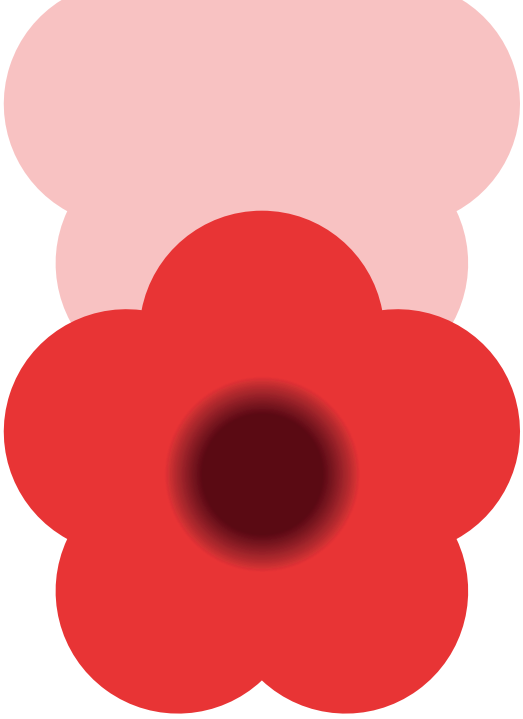
2. 국내 지역축제의 현황
-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의 변천과 미래
- 지역축제의 성과와 한계
- 문화예술 축제의 역할과 제약

3. 재원 주체의 특성과 한계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축제 비전
- 축제 참여인력 구조의 탈정치화
- 특정 영역에의 예산 분배 구조 개선

4. 청년인구 유입전략으로서의 축제의 역할
- 실질적 청년 인구 유입 수단으로서의 축제의 역할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취,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축제의 기능
- 축제 기획의 전문성 강화와 트렌드 반영 방안 모색

5. 축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 축제의 상시 준비에 따른 조직 운영구조 변화
- 자체 인력과 외부 전문그룹과의 교류와 교육
- 축제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 다변화

질문 지역 현장에서는 청년이나 전문가 보다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 또는 토호 그룹들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훨씬 많은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춘향제 소개

남원춘향제,
2030년의 100년을 준비한다

최용석 / 남원시 축제전문관

남원춘향제,
2030년의 100년을 준비한다.

올해로, 94년을 맞는 남원 춘향제는 1931년 음력 5월 5일(양력 6월 20일) 단오, 남원의 양로당 회원들과 권번(券番)이 주축이 되어, 당시 춘향과 몽룡이 광한루에서 처음 만난 5월 5일을 제일(祭日)로 기념하여 제례(祭禮)를 지내면서 시작이 되었다.
남원은 지리산 자락이 넓게 드리우고 산수가 매우 빼어났으며 농업이 발달하여 물산이 매우 풍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배경으로 풍류 문화가 성행하여 판소리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홍도전'등 고전문학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을 낳았다.
또한 조선후기 당대 가왕 송흥록(宋興祿,1801년~1863년)은 남원군 운봉면 비전리에서 태어나 동편제 유파를 확립하여 판소리의 중시조(中始祖)로 불리우며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곳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정치가 횡횡했던 1920년대의 남원사람들은 남원의 고유문화 관습을 보존하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1925년에 시작된 춘향사 건립운동과 남원 광한루의 보수는 민족 문화의 산물인 고적(古蹟)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결집시키려는 지역민의 의지가 담겼다.

춘향사당

1925년 춘향사 건립과정과 1931년 첫 번째 제사(祭祀)에 최봉선(崔鳳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당시 남원의 전통 예인(藝人)의 산실인 권번(券番)을 중심으로 전통 예능교육과 함께 예기(藝妓)들의 각종 가(歌), 무(舞), 악(樂)을 행해졌다.(2001. 성기숙)
1931년 제1회 남원 춘향제는 양로당(향리모임)과 남원 권번을 중심으로 여성이 제관을 맡아 '초헌관(남원권번)', '아헌관(평양권번)', '종헌관(진주권번)'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예기(藝妓)들이 각종 가(歌), 무(舞), 악(樂)을 행하였다. 현재는 교방의 전통과 권번의 명맥을 이은 남원시립국악단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출처. 춘향제 60년사).
1949년에 발행된 남원지(南原(誌)는 다음과 같이 춘향제의 유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제하에 잠든 민족혼을 깨우치고 춘향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속에 뿌리내려 춘향전의 문예적 가치를 만방에 빛낼 목적으로 발상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족혼을 일깨우고, 춘향 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춘향제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원춘향제, 춘향무도회

제94회 춘향제포스터

춘향무도회 포스터(2024년)

남원 춘향제의 "충과 열"의 가치를 계승한 남원 시민들이 1931년 제1회 춘향제를 지나 2024년 제94회 남원춘향제(2024.5.11~5.16)를 우리만의 방식과 창의적 상상력으로 "춘향, COLOR 愛 반하다!"란 주제로 7일 동안 남원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복(韓服)은 우리 민족의 숨결과 정제된 최고의 미(美)적 요소와 서로의 다음 속에서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의미와 뽐내고 즐기는 문화적 요소가 남아 있다. 이러하기에 삶의 희로애락(喜怒哀樂)과 시간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품위와 화려한 색감은 현재의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원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의 장롱 깊숙이 놓인 한복은 '한복나눔 한복기부 캠페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고전소설과 판소리 춘향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춘향무도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축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문화체험 프로그램, 식도락 등은 현대인의 일상의 피로감, 불쾌감을 한방으로 날려 보내는 건강한 일탈 축제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 모습은 선조들의 춘향제 의미를 새롭게 각색하였다.

"1년에 단 1주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마음껏 한복을 입고 즐기는 축제"

발光난장 대동길놀이 퍼레이드

광한루원, 요천로, 구도심을 감싸 안은 고즈넉하면서도 밤을 밝히는 일곱 가지 청사초롱은 예향도시, 남원의 은은한 품격이 스며든 풍광은 방문객에게 황홀한 쉼을 제공한다. 우리의 고전이면서 현재 진행형인, '발光난장 대동길놀이' 행렬(Parade)은 5월 11일(토) ~ 12일(일), 2일 동안 23개 읍면동과 지역 예술단체 등의 참여로 고전문학 춘향전을 만난다. 또한 이 속에는 우리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엄마 아빠의 기억, 나의 학창시절,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억을 소환하여 대동단결 축제인(人)으로 자유로움을 느낀다.

대동길놀이 퍼레이드(2023년)

판소리 춘향전, 뮤지컬이 되다!

춘향국악대전 포스터(2024년)

판소리 명창(대통령상2023년)

남원 춘향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판소리 춘향전!'이다.

우리나라 판소리 동편제 시조인 가왕(歌王) '송흥록'선생의 탄생지이고, 올해로 51년을 맞은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다(2024. 5. 26 ~ 28). 1회 조상현 명창(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지정), 4회 신영희 명창, 12회 남해성 명창(대통령상), 13회 안숙선 명창(대통령상/국가무형문화재 춘향가 보유자), 19회 이난초 명창(대통령상/국가무형문화제 제5호 흥보가 보유자), 45회 박애리 명창(대통령상), 50회 최민정 명창(대통령상/2023년) 등 현재까지 판소리계 명창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2024년 제94회 남원춘향제는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축제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원년이고 2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그 첫 번째는 1950년 제20회 춘향제부터 시작한'춘향선발대회'를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5개국 참가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확대하였다. 해외 선발 5명, 국내 지원자 중 서류심사, 예선(1차, 2차)을 거친 총 27명 등 총 32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한다. 이들은 남원에서 10일간 현지 동료들과 합숙을 통하여 지덕체(智德體)를 뽐내어 진·선·미·정·숙·현과 함께 글로벌 뮤즈, 우정상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선발된 미스춘향은 남원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93회 춘향선발대회(2023년)

2024년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2024년의 남원춘향제의 변화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을 5월 10일(목) ~ 11(금), 1박 2일 동안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2030년 지역축제 10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의 진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유럽의 세계적인 축제의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 일본의 마츠리 축제를 선도하는 민간기업 등 해외 발제자, 국내 발제자, 좌장 및 토론자 등 국내외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단 축제 담당자, 학계, 관광 및 축제전문가, 민간 관광기업, 예술인 등과 함께 축제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사항을 논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춘향제의 발전과 한국 지역축제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국제축제포럼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

지역축제에서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축제의 불문율이고 인간의 원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 중의 최고이며, 방문객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축제의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94회 춘향제는 백종원의 '더 본코리아'와 협력으로 남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레스피를 개발하고 전수한다. 참여자 접객업소 메뉴 보완, 컨설팅 먹거리 운영 등 참가하는 요식업(業) 인에게 제공한다.

광한루원 왼쪽 경외상가 주변의 막걸리 축제장, 요천둔치 춘향난장, 푸드트럭, 커피크닉존 등에서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행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공시제, 원산지 표시 및 춘향제전위원회의 안전먹거리 점검·운영 등으로 '맛과 안전', '착한 요금과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관광객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다.

K-컨텐츠, High 7공연

남원 춘향제 방문객은 축제 동안 취향과 인기를 겸비한 방송 연예인(가수, 아이돌)을 만나는 행운을 바란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의 축제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목표형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축제 주최측은 염원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94회 춘향제 기간 7일 동안 매일매일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

NO	공연명	일정	장소
1	**개막 축하공연(불꽃놀이)**	5.10(금) 20:00 ~ 21:30(90분)	특설무대
2	**퍼스널 뮤직 콘서트**	5.11(토) 19:30 ~ 22:30(180분)	
3	**OST 콘서트 '춘몽'**	5.12(일) 19:30 ~ 21:30(120분)	
4	**KBS 국악한마당**	5.13(월) 19:30 ~ 22:00(150분)	
5	**판락 페스티벌**	5.14(화) 19:30 ~ 21:00(90분)	
6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공연**	5.15(수) 19:30 ~ 22:00(150분)	
7	**폐막 공연(불꽃놀이)**	5.16(목) 19:30 ~ 21:00(90분)	

관광객 100만명에 도전한다.

2023년 40만 명 방문객에서 2024년 94회 춘향제 관광객의 목표를 100만 명으로 상향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홍보마케팅 기업과 제휴하였으며, 춘향제 전체 운영 스텝뿐만 아니라 행정 협업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자발적인 시민 홍보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제의 주제성을 부각하는 킬러 및 핵심 콘텐츠, 부가 콘텐츠, 특별 기획공연,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 다문화 거리, 공정한 먹거리, 종합안내소, 주차장 및 화장실, 편의시설, 프레스센터, 현장 운영본부, 안전대책 본부 등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관광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의 숙제는, "어떻게 누구, 무엇을 통하여 축제 정보를 필요한 이에게 전달할 것인가?"이다. 전문 홍보마케팅 회사와 단계별로 홍보를 On_off의 고전 방식(인쇄물/현수막)과 SNS 노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축제학교를 통한 '100인 원탁회의', 청소년참여를 위한'청소년 축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눈높이 콘텐츠 개발 · 운영', '또래 홍보 채널'로 실시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 빅데이타로 결과를 본다.

2030년 춘향제 100주년, 글로벌 축제로의 실용적 전략적 선택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홈페이지 전면 개편(4개국 언어)이다. 두 번째는 외부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평가다. 세 번째로 춘향제 빅데이타 조사 및 분석이다. 이를 통해 축제의 성과와 기대치를 수치로 얻게 된다. 또한 지역경제 효과의 명암 및 방문객 수(내국인, 외국인) 명시적 구별은 향후 글로벌 춘향제로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축제는 결과치로 말한다."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 빅데이타 획득으로 방문객수, 지역경제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는 결국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게 수치로 전환된다. 이번 남원춘향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춘향제'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남원시민과 지역예술인에게는 자긍심과 문화복지 만족도 증가로,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얻게 된다.

2024, 제94회 춘향제

2024 남원세계축제포럼

NWFF Namwon World Festival Forum 2024